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3370호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라이프]
유통가
옴니채널
전쟁
03

코스피 1999.22 (+6.66)

코스닥 659.60 (-3.82)

금리(국고채 3년) 1.67 (+0.01)

환율(원·달러) 1173.00 (+2.00) 〈23일〉

개점휴업 국회… 노동·경제 '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상임위 파행… 연내 처리 불발 우려
'총선모드' 여야, 지역구 챙기기 급급

23일 오후 시간강사법 등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여야가 24일에도 접점의 물꼬를 트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개의 여부가 불투명한 28일 본회의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나온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달 말을 법안 통과의 적기로 여기고 있는 만큼 내주 본회의가 사실상 여야가 만나는 마지막 테이블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과 22일 예정했던 본회의를 흘려버린 바 있어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 상임위 가동 합의했지만…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 가동에 합의한 지난 21일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여야가 뒤늦게 밀린 과제 처리에 나섰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물리적 시간도 부족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의 논의를 위해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여야는 원론 수준의 대화에서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본회의 통과가 쉬울 것으로 여겨졌던 250여 건의 무쟁점 법률안도 마지막 관문에 막혔다.

문제는 여야 모두가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설득하지 않은 채 법안 통과의 당위성만 주장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만 바라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상 최대의 탈당·분당 사태 앞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야는 국회 공전을 놓고 네탓 논쟁에 열중하고 있다.

◆ 여야, 총선에 집중…'협상동력 ↓'

물리적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연휴(25~26일)를 제외하면 본회의(12·28) 전까지 논의가 가능한 시간은 24일과 27일 이틀뿐이다. 상임위 논의가 파행을 거듭해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총선을 겨냥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국회의원들의 부재로 진일보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 모두 총선에 집중하면서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 동력도 바닥이다. 특히 여야가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도 접점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정 의장이 공언한 '연말 직권상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내 처리 불발은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 상정 불가방침을 고집한 정 의장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당장 당·청으로부터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밝히자 "국회의원 밥그릇만 챙긴다"며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장 해임 건의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 의장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최대한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정 의장은 여야에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 회동'을 제안, 24일이나 25일 중 회동에 나선다는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동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함께 쟁점 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가 몇 차례 회동에서 접점 찾기에 실패한 점을 감안하면 이날 회동에서 극적인 합의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상장사, 올 15조 푼다… 사상 최대 배당잔치

작년比 당기순익 증가 기업 세제 혜택

올해 상장기업의 '배당잔치'가 예상됨에 따라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KDB대우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현대차 등 508개 상장기업의 올해 배당금액은 사상 최대인 14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도입으로 요건에 맞는 고배당 기업 주식을 산 투자자는 종전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소액주주가 고배당 기업의 주식에서 받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종전 14%에서 9%로 인하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다.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또는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이 세제혜택 대상이다.

현대증권이 지난 2012~2014년 자료를 토대로 이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첫 번째 기준(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 배당금 10% 증가)에 해당되는 기업은 코스피 22개사, 코스닥 61개사였다. 두 번째 기준에 맞는 기업은 코스피 29개사, 코스닥 52개사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메리츠종금증권, 동성코퍼레이션, 더존비즈온, 아주캐피탈, GS리테일, 벽산, 서울옥션, 티씨케이, 테크윙, 우주일렉트로, 이크레더블, 블루콤 등이 대표적이다.

윤정선 현대증권 연구원은 "아직 상장사의 올해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작년보다 올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의 경우 세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 초 이후 배당주펀드 77개로 총 3조7567억원이 순유입됐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국내주식형펀드에서 9413억원이 순유출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올해 배당주 탑승(투자) 기한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의 공기업 배당 확대 추진에 삼성전자 현대차 등도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나서 배당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한국거래소 최종 매매일은 오는 30일이다.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려면 적어도 이날까지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 매입 뒤 계좌에 주식이 실제 들어오는 데 2거래일이 걸린다.

따라서 주식 매입 기준인 배당기준일은 28일이다. 배당으로 주식 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 시가총액을 배당락 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배당락은 29일 일어난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성탄절·토요일자 쉽니다

청년일자리!
연내 법안 통과만이 희망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노동개혁 5법
경제를 튼튼히 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들의 연내 국회 통과를 수많은 청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며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의 공공성 영역은 반드시 보호합니다.
▶기업활력법은 사전방지규정 및 사후승인 취소 등 철저한 장치를 통해 대기업들의 경영권 승계 등 제도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및 중장년 일자리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중장년이 다시 일할 기회를 열어 줍니다.

대한민국 정부

한줄 News

정치·사회

▲ **새정치민주연합**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당내 의원들의 이탈이 극심한 가운데 비주류의 좌장격인 김한길 전 대표와 박지원 의원까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23일 한일청구권 협정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일대 혼란은 피하게 됐다.

국제

▲ **미국 상무부**는 전날 중국산 내식강 수입제품에 대해 덤핑마진 255.80%와 이에 대한 상계관세 256%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값싼 철강제품으로 세계시장을 흔들고 있는 중국업체들에 대한 철퇴라는 평가다.

▲ 지난 20일 발생한 **중국 선전공단 부근 산사태** 현장에서 사고 발생 67시간 만에 처음으로 생존자가 구출됐다. 생존자는 19세 남성 톈쩌밍씨로 충칭에서 온 이주노동자로 알려졌다.

산업

▲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회사인 **현대로템**이 국내 최초로 탠덤 프레스 전용 고속 이송장치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 여객기**에 발생한 기체결함에 대해 항공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오전 6시30분 김포공항을 이륙한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보잉 737-800기)의 여압장치(기내 압력조절)에 문제가 발생해 152명의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다.

금융·부동산

▲ 여의도 **증권가**에 최고경영자(CEO) 교체 '인사태풍'이 예상된다. 앞으로 3개월여 안에 CEO의 임기가 끝나는 곳은 한국투자증권(유상호 사장), 신한금융투자(강대석), 하나금융투자(장승철), 미래에셋(조웅기·변재상), 대신증권(나재철), 교보증권(김해준), 하이투자증권(서태환) 등이다.

▲ 최근 단지 내에서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지인끼리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모임 공간으로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가 주목받고 있다.

유통

▲ **서울시**가 연말 택시잡기 전쟁 해소에 앞장선다. 서울시는 '택시 해피존'을 통해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23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사이 대로변에 지정된 6개 구역 승차대에서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경영' 동부대우전자, 5~50% 임금반납

비용절감 위해 직급별 반납
"경영정상화 되면 돌려줄 것"

동부대우전자가 모그룹인 동부그룹이 구조조정 중이라는 이유로 금융권 자금줄이 차단되자 임시방편으로 임직원의 임금 반납을 추진한다. 사진은 동부대우전자 사우디아라비아 신제품 발표회장에서 세탁기 제품을 구경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들. /동부대우전자

동부그룹 계열의 동부대우전자가 임직원의 임금 반납을 추진한다.

모그룹인 동부그룹이 구조조정 중이라는 이유로 금융권 자금줄이 차단돼 심각한 자금난을 겪자 임직원의 임금을 임시방편으로 활용해 운영자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최근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비용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직급에 따라 5~50%의 임금을 반납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 반납폭은 임원 50%, 부장 30%, 과·차장 20%, 사원·대리 5% 수준이다.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사측은 조만간 일정을 확정하고 임직원에게 이 같은 계획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임직원의 임금 반납은 비용 절감을 위한 여러 방안들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향후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임금 반납분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대우전자는 동부그룹이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를 인수하며 지난 2013년 출범했다.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면서 현재는 세계 4곳의 생산법인과 40여 개가 넘는 판매법인 및 지사, 지점 등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해외수출 비중이 약 80%를 차지할 정도다.

영업이익 역시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지난 2013년 78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40억원을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생산법인을 인수하고 동남아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말레이시아 법인은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연간 30만대의 생산 할 수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이곳에서만 2020년까지 매출 1억 달러를 기록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렇듯 잘 나간던 동부대우전자가 임직원 임금 반납을 실시하며 비상경영에 나선 이유는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선행 투자가 필요하지만 자금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금융감독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금융권에서는 동부그룹이 구조조정 중이라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다.

금감원은 50명 이상에게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공모채권 형태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동부대우전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임직원에게 채권(사모사채)을 팔려했다며 회사채 발행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동부대우전자는 지난 14일로 예정된 회사채 발행계획을 접었다.

동부대우전자는 회사채 발행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알아봤지만 이 역시도 동부그룹이 구조조정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동부대우전자의 수출물량을 담보로 대출하는 무역금융한도도 80%나 줄어든 상황이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전체 매출의 80% 정도를 해외에서 올릴 정도의 수출 기업이지만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국내 금융기관에선 무조건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이어가며 중국 업체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설비,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임금삭감·구조조정… 국내기업, 불황에 허리띠 '꽉'

대우조선·현대重·포스코 등
급여 반납 등 긴축경영 돌입

경기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주요 대기업이 긴축경영에 돌입하고 있다.

내년에도 경기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적자가 예상되는 중공업계는 임원 대상 임금 동결과 반납, 일부 기업은 직원들까지 확대하며 고강도 자구방안을 내놓고 있다. 적자의 늪에 빠진 조선·철강 등 중공업계는 급여를 반납하거나 희망 퇴직하는 등 임원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55명이었던 임원 수를 9월까지 46명으로 15% 줄였다. 부장급 직원 300여명은 회사를 떠났다. 임원들은 지난 9월부터 기본급의 10~20%를 반납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전 계열사 사장단이 흑자 전환 시까지 급여를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의 임원도 최대 50%까지 급여를 반납하고 조선 관련 계열사 부서장도 급여 10%를 내놓는다. 또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해 계열사의 경우 사장급은 임금 전액을 삭감했다. 상무급 10%, 전무급 20%, 부사장급도 임금의 30%를 삭감했다.

포스코는 연 5000억원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내걸었다. 지난해 4월부터 권오준 회장이 기본급의 30%, 임원들은 자율적으로 임금의 10~20%를 반납해왔다. 올 들어 10월부터 임원 월급 10%를 추가 삭감했다. 3분기 1조원 이상 적자를 낸 삼성엔지니어링은 전 직원 대상 무급 순환 휴직을 시행한다.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개월씩이다. 임원들은 휴직 없이 1개월치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

반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바로 두산그룹의 건설 중장비 생산업체 두산인프라코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사무직 30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에는 입사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20대 신입사원까지 포함돼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2월, 9월, 11월(기술·생산직)에 총 3차례 퇴직프로그램을 실시해 80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이번까지 하면 올해로 벌써 4번째 구조조정으로, 이번에는 사원·대리급 직원까지 포함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구조조정에서 전체 사무직 가운데 40%를 내보낼 예정이고 최대 80%까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출근한 신입사원 중에서도 구조조정 대상자가 있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양성운 기자 ysw@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인사 단행

'세무대1기' 김재웅 서울청장 임명

심달훈 중부청장·최현민 부산청장 1급 승진

세무대학 출신이 처음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 자리에 올랐다.

23일 국세청은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57·사진)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전보발령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관련인사 17면〉

김 신임 청장은 지난해 12월 세무대학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세청 1급(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승진했다. 김 신임 청장은 고교 졸업 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23살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세무대 1기로 입학해 1983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교육원 교수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시템 추진단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승진임명됐고,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도 1급으로 승진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맡게 됐다.

2급(고위공무원 나급)인 대전지방국세청장에는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에는 한동연 중부청 성실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는 서진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기획조정관은 김희철 서울청 조사1국장이 맡는다. 서울청에서는 김용균 성실납세지원국장, 임경구 조사1국장, 노정석 조사2국장, 강민수 조사3국장, 유재철 조사4국장이 새로 임명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 /연미란 기자

한·일 시가총액 100대 기업 비교 조사

평균급여 '억대' 넘는 韓기업 5개사

급여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
근속연수는 日 '혼다' 23.5년

한일 양국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통틀어 급여가 가장 많은 기업은 카카오로 1억7400만원에 달했고 근속연수는 혼다가 23.5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직원들의 근속연수와 급여를 비교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근속연수는 9.2년으로 일본의 15.8년보다 6.6년 짧고 급여는 한국이 6680만원, 일본이 8170만원으로 1490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근속연수는 한국이 일본의 58.4% 수준인 반면 급여는 82.2%에 달했다.

〈한일 기업별 급여·근속연수〉 /단위:백만원, 년

급여 순위	한국			일본		
	기업명	급여	근속연수	기업명	급여	근속연수
1	카카오	174	3.8	KEYENCE Corporation	152	11.8
2	신한지주	107	3.1	Nomura Holdings	145	3.3
3	KB금융	102	9.6	Itochu	128	16.3
4	삼성전자	102	9.6	Mitsubishi Corporation	127	18.6
5	SK텔레콤	102	12.8	Mitsui & Co., Ltd	125	18.9
6	하나금융지주	99	3.2	Tokio Marine Holdings	122	18.7
7	현대차	97	16.9	Sumitomo	120	18.4
8	기아차	97	18.7	FANUC	117	17.7
9	삼성화재	91	10.8	Dentsu	117	13.9
10	현대모비스	90	12.6	Sumitomo MitsuiFinancial Group	115	15.8

출처 : CEO스코어 / *2015.11.30 기준 한·일 시가총액 상위 100

*일본기업의 평균급여 원화 계산은 2014년 : 2015.03.31시점의 환율로 계산

한일 양국을 통틀어 급여가 가장 높은 기업은 카카오로 1억7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 1위인 키엔스(1억5200만원)보다도 2200만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카카오와 키엔스를 제외하고 평균급여가 억대를 넘어가는 기업은 한국 4개, 일본 18개로 총 22개사였다.

한국은 신한지주(1억700만원)가 2위를 차지했고 이어 삼성전자, SK텔레콤, KB금융(공동 1억200만원)이 공동 3위에 올랐다.

일본의 경우 증권사인 노무라홀딩스(1억4500만원), 이토추상사(1억2800만원), 미쓰비시상사(1억2700만원), 미쯔이상사(1억2500만원)가 '톱5'를 형성했다.

근속연수는 일본의 자동차업체인 혼다가 23.5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파나소닉(23.3년), MS&AD보험(22.6년), 덴소(22.1년), 재팬타바코(21.8년) 등 5개사가 20년을 훌쩍 넘겼다.

한국에서는 기아차와 한국전력이 18.7년으로 1위였고, KT(18.5년), 포스코(18.1년), 현대중공업(17.6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은미 기자

PC나 모바일로 주문한 상품을 인근 매장에서 수령하는 롯데의 '스마트픽' 서비스. /롯데그룹

홈플러스의 '키오스크' 서비스. 매장에서 상품을 고르면 집으로 배달을 해준다. /홈플러스

온라인서 고르고 매장서 픽업하고…

유통혁명 이끄는 옴니채널… 백화점·마트 대변신중

소요시간 단축·쇼핑몰 간소화 나서
당일배송 확대로 물류센터도 증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온라인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그 키워드는 차별화다. 모바일과 온라인몰이 생활용품 코너를 강화하고 백화점 의류브랜드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영역을 침범하자 오프라인 쇼핑채널도 변화의 길을 모색하게 된 것.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대안은 옴니채널이다.

◆ 너도 나도 옴니채널

롯데는 옴니채널 확장을 위해 그룹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9월부터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매장에서 받아보는 '스마트픽'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달부터는 오후 4시 이전에 주문한 고객도 당일에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달부터는 주문 후 3시간 내에 상품 수령이 가능하다.

23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30개 점포에서 매달 1만여 건의 주문이 접수되고 있다.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지난해 월평균 주문 건수 500건의 200배 수준이다.

롯데마트는 백화점의 '스마트픽'서비스와 함께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 물품을 수령하는 '드라이브 앤 픽'을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기존 '주차→쇼핑→계산→포장→출차'의 5단계(1시간 이상 소요) 과정을 '주문·결제→픽업 데스크 정차→출차' 3단계로 간소화했다. 15분 정도면 쇼핑을 끝낼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도 올 10월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의 쇼핑채널을 하나로 묶은 옴니채널 인터넷 쇼핑몰을 선보였다. 롯데그룹은 이 같은 옴니채널 강화를 위해 유통사업부, 모바일 사업부, 인터넷 사업부, 렌터카사업부 등 모든 부서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유기체로 운영 중이다.

신세계그룹은 기존에 분리돼 있던 신세계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이마트몰, 트레이더스몰 같은 그룹의 쇼핑몰들을 모두 합한 'SSG닷컴'이라는 사이트를 구축했다.

옴니채널이란?

옴니(Omni)채널 은 '모든 것, 모든 방식' 등을 뜻하는 옴니'omni'와 유통경로를 뜻하는 '채널(Channel)'의 합성어다. 오프라인, 인터넷, 모바일 등 기업들이 보유한 모든 채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화갤러리아도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매장에서 수령하는 '픽업@스토어'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기존 쿠폰, 이벤트 등 온라인 쇼핑몰만의 혜택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매장에서 현장 상품을 수령하는 방식이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픽업@스토어는 화장품 구매 고객이 주로 이용한다.

홈플러스도 옴니채널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매장 상품을 기반으로 배송하는 '온라인마트'와 매장에는 없는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문한 상품은 집으로 무료배송이 가능하다. 빠른 배달을 원하면 고객이 있는 가장 가까운 매장에서도 수령할 수 있다. 또 전국 홈플러스 65개 매장에서 상품을 고르면 집으로 배송해주는(3만원 이상 무료배송) '키오스크'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지금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스피드 장보기' 서비스 준비 중이다.

업계관계자는 "지금 면세점을 제외한 모든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온라인, 모바일에 고객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옴니채널 강화 움직임도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주문 즉시 받는 당일배송

옴니채널 성장은 물류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당일배송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소비자들도 무료배송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형마트들도 최근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짓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해 6월 경기 용인에 보정센터를 열었다. 국내 대형마트로는 처음이다. 202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6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도 연내에 경기 김포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가동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당일 배송률이 기존보다 2배 높아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국내 2위 업체인 현대로지스틱스 지분 35%를 인수했다.

◆ 앞서나가는 해외 선진 유통기업

가장 먼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로 묶은 곳은 미국의 메이시스백화점이다. 고객들은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중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상품 살 수 있다. 메이시스는 각 지역의 지점을 이용해 주문 당일 배송을 가능하게 했다. 온라인 쇼핑의 가장 불편한 환불, 교환을 용이하게 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스캔하고 결제까지 하는 '스캔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마친 고객은 계산대에서 기다릴 필요없이 '셀프 체크아웃 카운터'를 통해 나가면 된다. 미국 백화점인 노드스트롬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소비자들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라이크 투 바이(Like2Buy)'도 운영하고 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뛰어난 효율·쉬운 결제에 끌렸다

'옴니채널' 쇼핑체험기

상품 보고 수령 가능해 매력 포인트로

결혼 3년차 맞벌이 주부 추모씨(34·여)는 매일 저녁 7시께 퇴근한다. 생필품과 식재료 장만을 위해 일주일에 2번 정도 장을 보는 추씨는 퇴근 후 대형마트를 들려 물건을 구입해 집에 돌아가면 9시가 넘기 일쑤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쇼핑 시간이 크게 줄었다. 차로 잠깐 마트를 들르는 것만으로 쇼핑을 끝낼 수 있어서다. 추씨는 롯데마트의 '드라이브 앤 픽'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롯데마트 상품을 미리 주문한 후 롯데마트 픽업 데스크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상품을 수령한다. 평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 저곳 돌며 1시간 넘게 물품을 구매하는데 시간을 보낸 추씨는 드라이브 앤 픽 서비스를 이용해 15분 만에 쇼핑을 마친다.

시어머니를 생신을 위한 선물도 롯데백화점 '스마트픽' 서비스를 이용해 손 쉽게 구매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퇴근 후 롯데백화점을 들러 물품을 바로 수령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집들이 잔치를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주말에 집 근처 홈플러스를 들른 추씨는 남편과 함께 오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다. 생각보다 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오스크'덕분에 빈손으로 귀가했다. 키오스크가 구매 물품을 집으로 무료 배송해줬기 때문이다. 키오스크는 매장 상품을 구입하면 집으로 무료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복잡한 절차 없이 터치 몇 번이면 내 장바구니가 집으로 도착한다.

온라인 마켓이 당일 배송을 해준다고 하지만 추씨는 상품을 직접 보고 수령하는 것을 선호한다. 추씨처럼 직접 상품을 눈으로 보고 구매하길 원하는 오프라인 쇼핑족들은 올해 유통업계가 옴니채널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마켓 수준의 편안함을 갖춘 오프라인 쇼핑이 가능해졌다. /김성현 기자

홈쇼핑도 '옴니채널 따라잡기'

롯데홈쇼핑

T커머스 전용 '롯데OneTV앱' 오픈
홈쇼핑 시청부터 결제까지 한번에

롯데홈쇼핑은 23일 홈쇼핑업계 최초로 티커머스 채널 전용앱인 '롯데OneTV앱'(안드로이드·사진)을 오픈했다. 이 앱은 영상 시청부터 주문, 결제까지 모든 절차를 모바일로 한 번에 가능하게 한다. 단순한 화면 구성과 간편한 결제 프로세스로 모바일 쇼핑에 다소 익숙하지 않은 40~50대 고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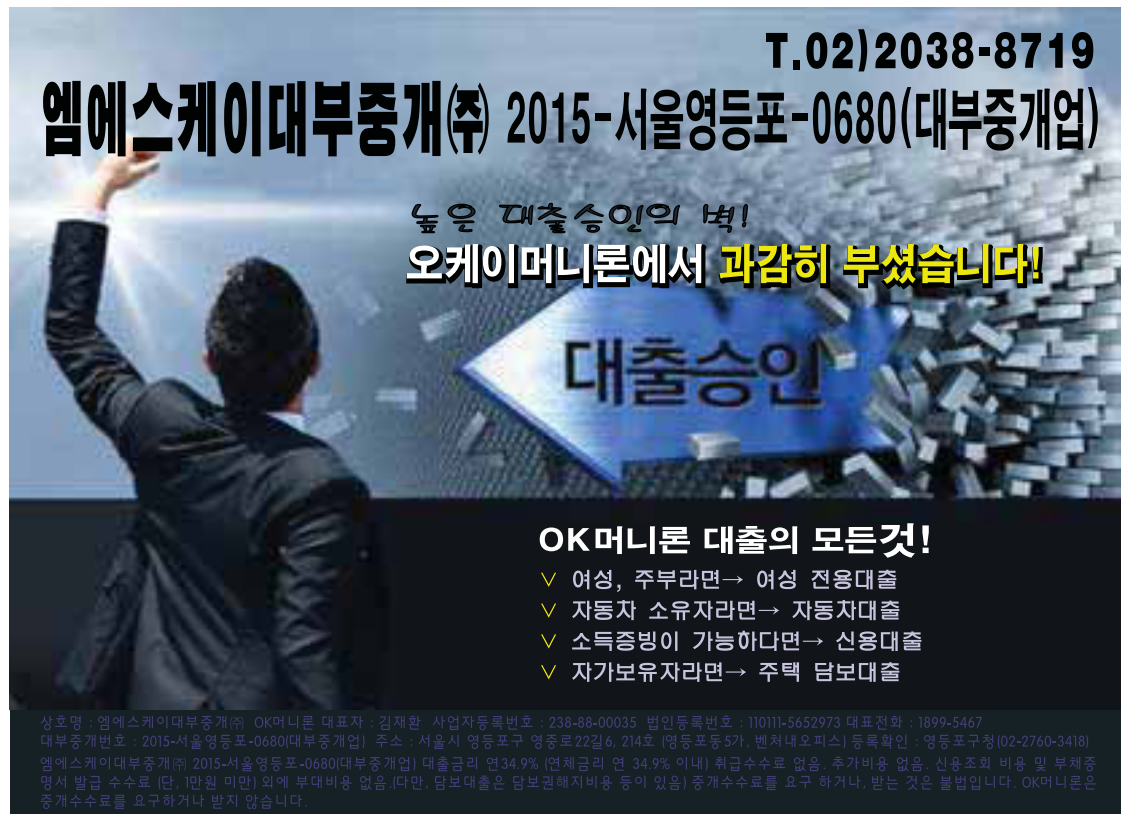
롯데홈쇼핑은 롯데 OneTV 앱 출시를 기념해 내달 31일까지 앱 다운 고객에게 1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2회 구매 시 적립금 5000원, 3회 이상 구매 시 적립금 1만원을 페이백 해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김성현 기자

티몬

모바일 전용 패션채널 '웨어웨어' 선봬
편집샵 컨셉… 희소성 있는 제품 소개

티몬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의류와 잡화, 악세서리를 한 곳에 모은 모바일 전용 패션 채널 '웨어웨어'(사진)를 23일 오픈했다.

웨어웨어는 티몬 앱(APP) 내에서 별도의 카테고리로 운영되며 고품질의 패션 브랜드와 희소성 있는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소개한다. 기존 온라인 쇼핑몰과는 달리 오프라인의 브랜드 편집샵 컨셉으로 패션 매장을 둘러보듯 모바일 화면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바나나크레이지, 유콜미엑스, AG진, 허드슨 진, 아웃스탠딩 오디너리 등 국내외 10 여개 인기 브랜드의 440여 개 제품이 준비됐다. 모든 상품은 무료 배송되며 무료반품도 가능하다. /김성현 기자



3.5 vs 256% 美, 中의 반덤핑 폭탄… 한국 철강의 희소식

〈한국〉 〈중국〉

美, 中 내식강 제품 덤핑예비판정
'재고 처리' 나선 中에 직접 경고

한국産 제품은 2.99~3.5% 그쳐
미소세율 1%미만… 영향도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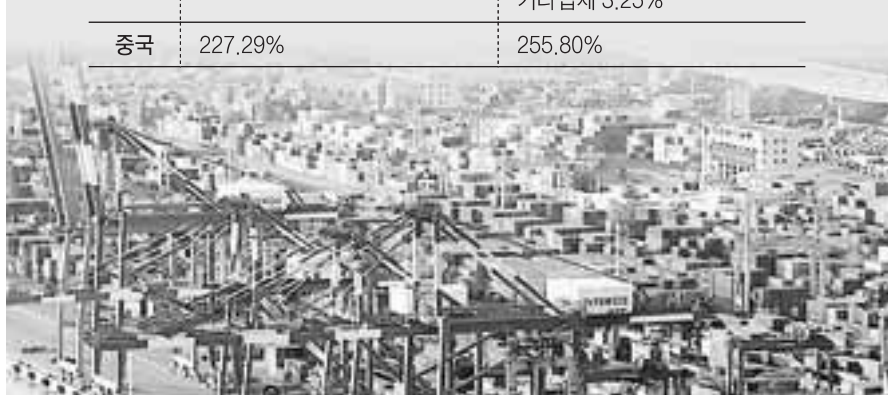
저가제품으로 세계시장을 흔들고 있는 중국 철강업계에 미국 정부가 철퇴를 내리치고 있다. 값싼 중국산 철강에 고전하고 있는 한국에는 희소식이다.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중국산 내식강 수입제품에 대해 덤핑마진 255.80%와 이에 대한 상계관세 256%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반면 한국산 내식강 제품에 대해서는 동국제강·유니온스틸에 2.99%, 현대제철에 3.51%, 나머지 한국기업의 제품에 3.25%의 덤핑마진 예비판정을 내렸다. 상계관세 판정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1% 미만의 미소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 상무부는 또 이탈리아산 내식강 제품에 대해 3.1%의 덤핑마진 예비판정을 내렸다. 마르세가글리아는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 여기에서 제외됐다. 인도산 내식강 제품은 6.6~6.9%의 판정을 받았다. 중국에 대한 덤핑마진 판정과 비교했을 때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상무부 철강제품 반덤핑마진 예비판정 결과〉

	냉연강판	내식강
한국	현대제철 0.61% 포스코/대우인터내셔널 0.18%	동국제강/유니온스틸 2.99% 현대제철 3.51% 기타업체 3.25%
중국	227.29%	255.80%



이 같은 판정 결과를 두고 미국 정부가 중국 철강업체를 겨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는 "값싼 중국산 철강이 세계시장을 흔들고 있어 미국이 이를 잡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며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냉연강판에 대해 미 상무부가 내린 예비판정 결과도 이를 방증한다. 미 상무부는 지난 주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중국에 227.29%의 덤핑마진을 내렸다. 한국의 경우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은 0.18%, 현대제철은 0.61%였다. 1% 미만의 덤핑마진은 '미소마진'으로 불리며 상계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다른 나라들도 미소마진은 아니었지만 중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브라질은 7.42%, 인도는 4.45%에 불과했다.

냉연강판에 대한 최종판정은 내년 4월, 내식강에 대한 최종판정은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다. 그때까지 상무부에 반덤핑을 제소한 미국의 철강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내식강 예비판정 결과에 대해 미 철강업체 관계자는 "실제로는 판정결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덤핑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불공정한 가격으로 수입된 철강제품이 예측불가능할 정도의 속도를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미흡한 판정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500%의 덤핑마진 판정은 나와야 덤핑행위를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아래라면 효과는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 철강업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지만 한국 업계로서는 일단 희소식으로 평가된다. 중국산 철강에 대해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업체는 한국시장을 잠식하고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에 맞서 공동전선을 펴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반덤핑 제소를 준비 중인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두 업체는 산업통상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반덤핑 제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철강의 시장교란은 중국 내 과잉생산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중국은 연간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에 달하는 8억t 가량의 철강 제품을 생산한다. 이 중 실 수요량은 5억~6억t에 불과하다. 남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덤핑 행위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국은 현재 좀비기업 퇴출을 비롯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 중이어서 이 결과에 따라 덤핑 문제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

덤핑마진이란?

정상가격에서 수출가격을 뺀 차액을 의미한다. 정상가격은 덤핑의심물품과 동종물품이 공급국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통상적인 거래가격이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말한다.

좀비기업이란?

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 또는 채권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기업을 영어에서 '되살아난 시체'를 의미하는 좀비에 빗대 부르는 말이다.

美 자동차업체들, 자율주행차 구글에 러브콜

포드, 경쟁보다 협력하면 서로 이익
구글, 200만 마일 이상 시험 성과

포드 자동차를 시작으로 미국 자동차업체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구글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 구글과 포드와의 협력이 다른 자동차업체들과 구글 간 유사한 거래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포드와 구글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쇼(CES)에서 자율주행차 합작 벤처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CES는 전 세계 자동차업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이 이뤄낸 혁신 성과물을 발표하는 장이 돼 왔다. 자율주행차 합작을 공식화하기에 어울리는 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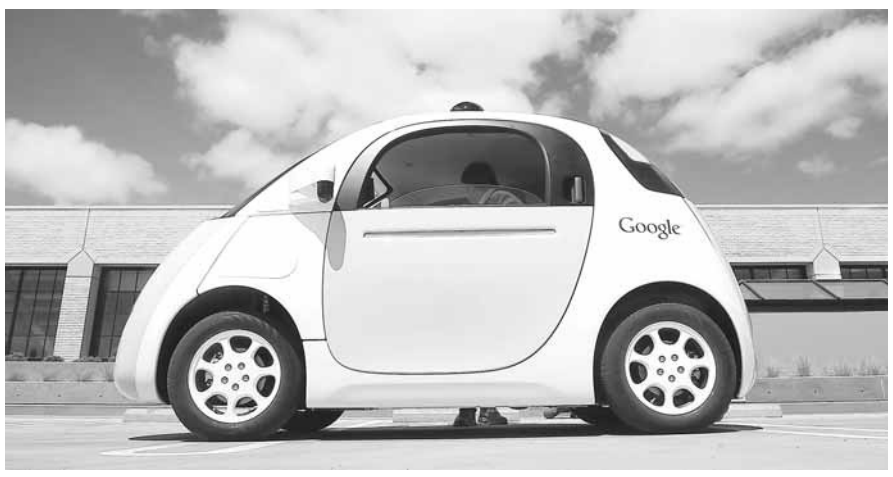
구글은 자동차를 직접 제조할 때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포드 역시 독자적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구글과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이다.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일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자동차 부문 부사장인 틸로 코슬롭스키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정보통신(IT)기업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겠지만 자동차를 제대로 알고 있는 곳은 자동차회사"라며 "동시에 자동차회사들은 IT기업들이 가진 그들만의 전문성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제너럴모터스(GM)이나 피아트-크라이슬러에게도 해당되는 설명이다. GM은 지난 10월 구글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자동차 제조 방식을 개발하는 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피아트-크라이슬러 역시 지난 몇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애플이나 구글의 자율주행차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다.

현재 구글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구글이 지난해에만 100억 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입했다. 이 중 정확히 얼마나 자율주행차 개발에 투입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이미 200만 마일 이상의 자율주행 시험을 실시할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의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인 세르게이 브린은 지난 9월 자율주행차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 정상급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력하고 싶다고 말해 자율주행차 출시가 머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송병형 기자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도로에서 주행 시험 중인 구글의 자율주행차의 모습. 구글은 포드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생산을 위해 협력벤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왼쪽사진 오른쪽)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김의원 사무실에서 현안에 대한 회동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국회 사무실에서 관계자와 함께 현안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김한길·박지원 "탈당 고심"… 요동치는 야당

원내교섭단체 만들려 물밑작업
문재인, 분열상황 정면돌파 선언

새정치민주연합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당내 의원들의 이탈이 극심한 가운데 비주류의 좌장격인 김한길 전 대표와 박지원 의원까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어 이들의 탈당이 확정될 경우 제1야당의 분당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박 의원은 탈당 쪽에 무게를 두고 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 현역의원 20명을 채우기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김 전 대표가 아직 고심의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결단을 하지 않을 경우 탈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대표의 탈당 키는 사실상 문 대표가 쥐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 역시 이날 신당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밝히며 우회로 탈당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 의원은 "신당들끼리 통합형태가 됐을 때 결단을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선제적으로 나가서 그러한(신당 세력을 통합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도 그는 "김 전 대표와 대화를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느꼈다"며 "김 전 대표도 어떻게 해서든 함께 그런 일을 해보자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서는 "안철수 의원께서 새정치를 구현하면서 '기소만 돼도 안 된다'고 했지만 저에게 연락해온 것도 있고…"라며 연락이 왔음을 시사했다.

김 전 대표와 박 의원의 탈당은 당내 의원들의 대거 이탈로 연결될 수 있어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 '김한길계'에는 호남 지역의 주승용·김관영 의원, 수도권의 이종걸 원내대표·최재천·노웅래·민병두 문병호 정성호 의원, 충청권의 변재일 의원 등이 있다. '박지원계'로는 호남의 김영록·이윤석·김영록·박혜자 의원, 수도권의 김민기 의원 등 10명 가량이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문 대표는 특별한 반응 없이 총선 체제를 구축,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고 인재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엊그제까지 개혁의 대상이던 사람들이 개혁 주체인양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야권 분열상황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당은 대의가 아니다. 분열이 승리의 길이 아니라 필패의 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면서 "지금 이 시기의 대의는 총선승리를 위해 우리 당이 새로워지고 단합하고 야권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여야 1대 1구도가 될 것"이라며 "박근혜 유신독재정권 대 반독재 야권세력의 선명한 대결구도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연미란 기자 actor@

1975년 현대차가 처음 출시한 '포니'.

아반떼.

LF쏘나타.

2015년 출시된 그랜저.

실속 ➡ 고급 ➡ 명품… 현대가 만들면 역사가 된다

〈아반떼〉 〈그랜저〉 〈제네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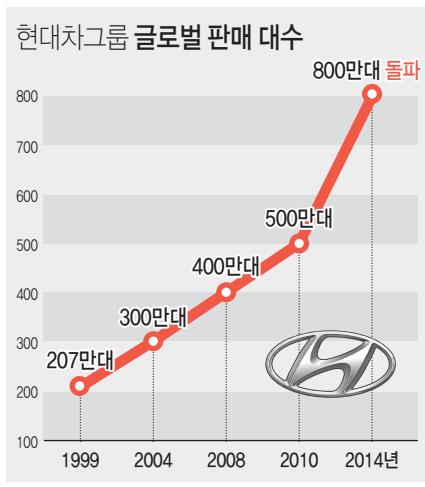
갤로퍼에서 제네시스까지.. MK의 도전 반세기

⑤ 승부사 MK 현대차 히트작

'뚝심경영'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도전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1999년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취임하던 당시 현대차그룹의 위상은 지금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 품질이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악평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승부사 정 회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불과 10년 사이에 현대차그룹을 세계 정상자리에 올려놨다.

정 회장은 도요타·폴크스바겐·GM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시킨데 이어 최근에는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론칭하고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렉서스 등이 경쟁하고 있는 고급차 시장 공략에 나섰다. 정 회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형 자동차 사업까지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성장 발판이 된 히트작들을 정리해본다.



◆ 국내 최초 고유모델, '포니'

1975년 10월 30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 55회 토리노 국제자동차박람회에 처음 등장한 포니.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16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고유모델을 갖는 나라가 됐다. 시판 첫 해인 1976년, 포니는 1만726대가 판매돼 당시 국내 승용차 판매의 절반에 가까운 43.5%라는 놀라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포니 시리즈는 1990년까지 총 15년간 판매됐으며 국내에서는 48만여대, 해외로 26만여대가 수출되는 등 총 74만여대가 판매됐다.

◆ 단일 모델 역대 최다판매 '아반떼'

현대차 아반떼는 1990년 국내 자동차 시장 최초의 준중형급 차량이다. 1세대부터 5세대 아반떼(MD)에 이르기까지 약 25년간 국내외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정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지 3년여 만인 지난 2012년에는 '북미 올해의 차', '캐나다 올해의 차', '남아공 올해의 차' 등에 잇달아 선정되는 등 뛰어난 상품성과 디자인으로 출시 이후 세계 주요 지역에서 호평을 받았다.

아반떼는 24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국내 단일 차종 중 최초로 전세계 누적 판매 1000만대 돌파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출시 이후 디자인, 대폭 향상된 기본기 등을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침체된 국내 준중형 승용차 시장 상황에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에 2만8398대가 판매되며 베스트 셀러 입지를 이어가고 있다.

◆ 최장수 모델 '쏘나타'

1985년 첫 선을 보인 이래 쏘나타는 줄곧 현대차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기도 했다. 현대차는 1985년 출시한 1세대 쏘나타를 그 해 1029대 판매한 이후 약 30년만인 2014년 7세대 신차로 누적 세계 판매 700만대를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 750만대 돌파) 1985년 '소나타'가 첫 출시된 이듬해 '쏘나타'로 이름을 바꾸고, 1988년 쏘나타, 1993년 쏘나타 II, 1998년 EF쏘나타, 2004년 쏘나타(NF), 2009년 쏘나타(YF)에 이르기까지 매번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 혁신을 거듭하면서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를 새로 써 왔다. 특히 지난해 3월 출시된 7세대 쏘나타(LF)는 올해에도 인기를 지속하며 11월까지 국내 시장에서만 9만5760대가 판매돼 국내 차종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

◆ 부와 성공의 상징 '그랜저'

지난 1986년 미쓰비시와 공동개발해 첫 선을 보인 그랜저는 현재 5세대 모델로 이어지고 있다. 정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며 2011년 1월에 출시된 현행 5세대 그랜저는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쳐'가 적용돼 고급 대형차로서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채택해 시장에 반향을 일으켰다. 2013년 12월에는 국산 대형 세단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델인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국내에 출시됐다. 그랜저는 ▲1세대 그랜저 9만2571대 ▲2세대 16만4927대 ▲3세대 42만6259대 ▲4세대 55만8523대 ▲5세대 55만1735대(하이브리드, 디젤 포함) 등 지난달까지 세계 시장에 총 179만4015대가 판매됐다.

◆ 제네시스 브랜드 '제네시스(G80)'

제네시스는 현대차 최고의 후륜구동 세단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비롯해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동급 세단을 압도하는 크기와 파워트레인, 첨단 편의 및 안전사양을 갖춰 2009년 1월 열린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대한민국 자동차 최초로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후 2013년 11월 글로벌 명차의 새 기준을 제시한다는 목표 아래 현행 2세대 제네시스(DH)를 출시했다. 정 회장의 야심작이기도 하다. 제네시스는 올해 11월 초 별도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의 출범으로 향후 페이스 리프트 모델부터는 G80으로 이름이 바뀔 예정이다. 제네시스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판매된 ▲1세대 모델이 세계시장에 총 26만4447대 판매됐으며 ▲2세대 모델은 2013년 말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14만1919대가 판매되는 등 총 40만 6366대 판매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포니
첫 해 점유율 43.5% 국민차 등극

아반떼
꾸준한 인기에 누적 1000만대 돌파

쏘나타
기술혁신 거듭… 국내차종 판매1위

그랜저
대형 첫 하이브리드 '고급형' 구축

제네시스
첨단 편의·안전사양 '명품' 반열에

제네시스 G80.

주민번호, 2018년부터 바꿀 수 있다

헌재, 현행법 헌법 불합치 결정

오는 2018년부터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서다.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7년 12월31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객관·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모씨 등 5명은 각종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이 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안랩 '묻지마 투자'… 정치테마 군불때기

장중 16.90%↑…52주 신고가 경신
나흘 연속 강세… 주가 상승률 75%

'안철수 테마주'의 대표 종목인 안랩이 이례적인 회사 측의 투자 유의 당부에도 강세를 이어갔다. 정치 테마주는 주가 등락이 심하고, 이슈가 끝나면 주가가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3일 코스닥시장에서 안랩은 전날보다 1100원(1.39%) 오른 8만400원에 장을 마쳤다. 안랩은 이날 장중 한때 16.90%까지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다. 안랩은 전날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은 것을 비롯해 지난 18일부터 나흘 연속 강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나흘간 주가 상승률은 75%에 이른다.

이는 안랩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보유 지분 18.60%)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독자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 데 따른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치인 테마주는 소문이나 막연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다 급락으로 돌변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추종매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안랩도 이날 한국거래소의 주가 급등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기업의 본질가치와 가치 성장성 이외의 기준으로 투자하는 것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정치인 테마주는 해당 정치인과 무관한 경우도 많다. 써니전자는 안랩 경영전략실 이사로 근무한 송태종 씨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다믈멀티미디어는 정연홍 대표가 김홍선 전 안랩 대표와 대학원 동문이라는 이유로 각각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들휴브레인(4.14%) 등 약세를 보인던 문재인 테마주도 이날 상승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이들 종목을 정치 이슈에 따라 매수하고 있는데, 정작 정치인과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테마'주는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무관한 만큼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문호 기자 kmh@

‘반도체 집착’ 도시바의 몰락이 던진 교훈…

과거 집착하다 경쟁사에 밀려… 선제대응 시급

전성기 이끌던 가전도 영업손실 20%내며 와르르

일본 첨단산업의 상징이던 도시바의 몰락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위기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화를 자초한 점, 거대한 몸집이 날로 부실해지는데도 수익이 나는 반도체 사업에 의지해 연명하다 결국 몰락하게 된 점은 한국에게도 큰 교훈이기 때문이다.

2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시바는 올해 전자부문에서 약 15%가량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의료사업기기부문에서는 영업이익이 8%에 못미쳤고, 에너지(원전)부문에서는 영업이익을 거의 내지 못했다. 도시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생활가전제품부문은 처참했다. 영업손실이 거의 20%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못한 결과였다. 지난해는 전자부문에서 18%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렸고, 의료사업기기부문에서도 10%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생활가전부문의 영업손실도 10% 미만이었다.

전자부문의 영업이익은 거의 전부가 반도체부문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상 도시바를 지탱한 것은 반도체 하나였던 셈이다.

도시바는 과거 PC, DVD플레이어, TV 등 전자제품시장을 선도했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이 바뀌는데도 과거 영광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중국의 경쟁업체들에게 일본 업체들이 밀려나는 상황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다. 파나소닉 등 다른 일본 업체들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도시바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는 반도체에서 나오는 수익에 의존하며 생명을 이어갔다. 도시바의 반도체는 여전히 세계시장의 강자다. 지난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에 1조6800억 엔의 수입을 올렸다. 전세계 반도체 톱10 중 하나이고, 플래시 메모리 시장의 주역 중 하나다. 하지만 생활가전부문에서의 부진을 감당하기 벅찼다. 같은 회계연도에 생활가전부문의 영업손실은 1100억 엔에 달했다.

지난 7월20일 일본 도쿄의 한 도시바 매장에서 고객들이 에어콘을 둘러보고 있다. 수년 간에 걸친 회계부정 조작이 들통나 위기에 처한 도시바는 21일 전직원의 3%에 달하는 약 6800명에 대한 정리해고 방침을 발표하면서 내년 1분기에만 약 5500억 엔(약 5조3368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올해 도시바의 몰락을 가져온 회계부정 사건도 이 같은 왜곡된 회사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성과 경쟁은 결국 회계조작으로 이어졌다. 도시바 몰락의 뿌리에 안이한 위기대응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도시바는 2015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 5500억 엔의 적자를 낼 전망이다. 천문학적인 적자의 결과는 도시바의 해체가 될 전망이다. 도시바는 인도네시아의 TV공장을 내년 3월까지 중국 기업에 매각할 계획이다. PC 부문도 본사에서 분리한다. 후지쓰나 VAIO와의 통합설이 돌고 있다. 백색 가전은 샤프와 통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사업기기 부문도 매각한다는 소식이다.

남는 것은 반도체와 에너지 부문이다. 이 분야라고 전망이 밝지는 않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와 미국, 대만에 더해 중국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쟁자로 부상할 전망이고, 원전 역시 저유가와 친환경에너지의 대두로 미래가 어둡다.

전날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등급 평가는 도시바의 암울한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무디스는 도시바의 신용 등급을 ‘Baa3’에서 투기 등급인 ‘Ba2’로 내렸다. S&P도 ‘BBB-’에서 투기 등급인 ‘BB+’로 낮추었다.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강등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현대기아차 디자인, 세계서 인정

제네시스 EQ900 등 8개차종 美 ‘굿디자인어워드’서 수상

현대기아차는 제네시스 EQ900, 아이오닉, 아반떼, 투싼, 쏘렌토, K5, 콘셉트카 산타크루즈(HCD-15), 트레일스터 등 8개 차종이 미국의 유력 디자인상인 ‘2015 굿디자인 어워드’ 운송 디자인 자동차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현대디자인철학을 인터렉티브 아트로 표현한 ‘스컬프쳐 인 모션’도 그래픽 부문에서 수상했다. 지난 9일 국내 출시된 제네시스 EQ900은 우아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세련된 디자인의 헤드램프, 그릴에서 후면부까지 이어지는 우아한 측면 라인 등 제네시스 브랜드 최상위 모델로서 품격 있는 디자인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 아반떼는 정돈된 기초조형을 바탕으로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역동성, 투싼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만의 대담한 이미지와 세련된 도심형 스타일로 품격 있는 디자인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의 친환경 전용 플랫폼을 처음 적용해 내년 출시를 앞둔 아이오닉은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디자인이 특징이며, 출시도 되기 전에 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해 기대감을 높였다.

기아차 K5는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면 처리로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을 완성한 점, 쏘렌토는 시원하고 강렬한 전면부, 풍부한 볼륨감이 돋보이는 측면부로 어우러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받았다.

올해 시카고 모터쇼에서 첫선을 보였던 현대차 콘셉트카 산타크루즈는 크로스오버 트럭 콘셉트카로 대형 헥사고날 라디에이터 그릴이 돋보이는 역동적인 디자인, 쏘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아차 콘셉트카 트레일스터는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디자인이 호평을 받았다.

/양성운 기자

기아차 ‘K5’

‘기술의 로템’ 프레스 전용 고속이송장치 국산화

현대로템, 4년여 연구 공개 1200억 상당 수입대체 효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회사인 현대로템은 23일 국내 최초로 탠덤 프레스 전용 고속 이송장치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부산 녹산공단에서 열린 시연회에는 국내 자동차·차체 부품사 임직원 4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현대로템은 자체 개발한 고속 이송장치 시제품을 처음 대중에 공개했다.

탠덤 프레스란 커팅, 벤딩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여러 대의 프레스를 하나의 라인으로 묶어 놓은 설비다. 이번에 현대로템이 개발한 고속 이송장치는 판넬을 탠덤 프레스에 공급해주는 장치로 기존 장치 대비 공급 속도가 20%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현대로템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지난 2011년 고속 이송장치 개발에 착수, 그간 전량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고속 이송장치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로써 현대로템은 1200억원 상당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고속 프레스 수요에 선제 대응해 세계 프레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현대로템이 지난 22일 부산 녹산공단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탠덤 프레스 전용 고속 이송장치 시연회를 진행했다./현대로템

현대로템이 개발한 고속 이송장치는 국산화와 함께 경쟁사 제품을 뛰어넘는 성능을 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탠덤 프레스에 사용되던 독일, 일본, 스위스 등 해외 경쟁사 고속 이송장치의 분당 이송 횟수(spm)가 15spm에 불과한 반면, 현대로템 제품은 18spm으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판넬을 이송할 수 있다. 생산성 극대화가 중요한 자동차 생산설비시장에서 선진 기술력에 기반한 프레스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이송 시 판넬을 고정하는 크로스바의 길이를 기존보다 짧게 만들어 처짐을 방지, 작업의 정밀도를 향상시켰다.

경쟁사 제품 대비 크로스바의 가동 폭을 넓혀 보다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효율적인 판넬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장치 운전간 발생하는 진동을 감소시켜 이전보다 더 높은 안정성을 확보했다는게 현대로템 측 설명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현대로템은 탠덤 프레스 전용 고속 이송장치 국산화에 성공한 것뿐만 아니라 모듈 프레스 전용 고속 이송장치도 개발 중에 있다”며 “그동안 다양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프레스를 공급해온 만큼 5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프레스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해 포드, 르노-닛산, GM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에 프레스 설비를 납품한 바 있다.

2011년에는 600억원 상당의 포드 인도공장 프레스를 수주했으며, 2014년에는 북미 미시간주 GM 랜싱공장에 들어가는 3000억원 규모의 프레스 물량에 대한 우선 공급권을 확보해 세계적인 프레스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JS대부2015서울금천-00029(대부업)
현금없이 사는 차
(당일출고)
만 20세 이상 누구나 가능
차 + 취.등록세 + 보험료 모두 현금없이 당일 출고!
그리고 추가로 여윳돈 1,000만원도 당일 같이 드려요~ (전국)
저신용자 OK! 무직자 OK! 당일출고 OK!
아시아캐피탈 1833-7475
월00%연34.9%이내(연체이자포함)추가비용無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 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9층(가산동,뉴티캐슬)서울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02-2627-1312

현대모비스, 소외이웃에 1억5000만원 물품 전달

임직원 500여명과 함께 ‘소외이웃과 사랑 나눔’

현대모비스는 이달 말까지 전국 115개소의 복지 단체와 결연 가구를 찾아가 온정을 나누는 ‘소외이웃과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본사, 연구소, 각 공장과 부품사업소 등 45개 현대모비스 사업장의 임직원 500여 명이 참여해 1억5000만 원 상당의 물품도 전달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 임직원들은 독거 노인, 보육원, 장애인 시설 등 65개 복지 단체에서 동파 예방, 안전 점검 및 김장 담그기, 연탄 배달, 송년 행사 등의 활동을 펼친다. 기초생활 수급 50가구에는 온열매트, 방한내복 등 동절기 필수 물품을 전달한다.

현대모비스는 2003년 ‘1본부 1가구 돕기 운동’을 시작으로 매 절기마다 테마를 꾸려 복지 단체와 저소득 가정을 돕고 있다. 설에는 ‘사랑의 떡국 나눔’, 여름에는 ‘안전한 여름나기’, 추석에는 ‘사랑의 송편 나눔’, 연말에는 ‘소외이웃과 사랑 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현대모비스 직원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 함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고심의필 : 938-0500

동성제약

“ Help me... ”

냄새없고 복용이 간편한
正露丸®
당의정
설사·식체·묽은변
48정

배탈, 설사엔 동성제약 정로환이 좋습니다!

정로환은 위장의 원할한 활동을 도와주는 생약 성분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만든 재재로 배탈, 설사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복용이 간편하고 특유의 냄새를 제거한 정로환 당의정이 있어 편리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우리의 약, 동성 정로환 –
이제, 지긋 지긋한 장질환의 고민에서 벗어 나십시오.

동성 **정로환**

【성상】 흑색환제/분홍색 당의정 **【규격】** 120환, 500환/48T
【성분 및 함량】 ■환제(1환중) : 크레오소오트 44.4㎎ | 향부자가루 16.6㎎
황련가루22.2㎎ | 강초가루 22.2㎎ | 진피 22.2㎎
■당의정(1정중) : 크레오소오트 22.5㎎ | 황백엑스산33.75㎎ | 현초가루 25㎎ |

소비자 상담전화 : 080-001-0921

'현장 경영' 시동 건 LG 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 "고객에 묻고 현장서 길 찾는다"

서울·경기 직영점·고객센터 등
영업현장 찾아 점검·직원 격려

LG유플러스는 권영수 부회장(가운데)이 22일 서울, 23일 경기지역의 직영점과 고객센터 등 일선 영업현장을 차례로 찾아 현장경영에 본격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권영수 부회장이 서울 서초직영점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LGU+

LG유플러스는 권영수 부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23일 경기지역의 직영점과 고객센터 등 일선 영업현장을 차례로 찾아 현장경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이 최고경영자(CEO)에 취임한 뒤 공식 외부활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4주차를 맞는 권 부회장은 그 동안 본부별 업무보고와 임원인사 등 현황파악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도 사원, 대리, 과·차장 등 직급별 간담회를 통해 임직원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는 '경청과 배려'를 강조해온 권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권 부회장은 현장경영 첫날인 지난 22일 서울의 영업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서초직영점과 논현동 서울고객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매장환경, 서비스와 상품 등에 대한 고객 반응을 살피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권 부회장은 제조사별 스마트폰을 두루 살펴보면서 가장 인기 있는 단말기부터 제품별 가격, 성능 등을 꼼꼼히 체크했다. 특히 적는 자가 이긴다는 '적자생존'의 원칙대로 틈틈이 수첩을 꺼내 메모를 이어갔다.

권 부회장은 '일등 방법론'에 대해 "남들이 깜짝 놀랄만한 차별화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답은 현장과 고객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고객 조사와 강한 실행이 필요하다"며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일단 결정하면 무서울 정도로 밀어붙여야 한다"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서초직영점에 이어 논현동 서울고객센터를 방문한 권 부회장은 유무선 멀티 상담을 위한 교육·훈련 상황을 확인했다. 또 직영점 및 고객센터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열정 ▲전문성 ▲팀워크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사장은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애환에 귀 기울이면서 "고객과 가장 접점에 있는 상담사들이 즐겁게 일해야 고객도, 회사도 즐거울 수 있다"며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서울 내 현장방문을 마친 권 부회장은 23일에도 경기지역 직영점 등의 영업현장도 방문, 현장경영을 이어갔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삼성페이로 간편하게 빵 기부하세요"

삼성·월드비전
'사랑의 빵' 캠페인 실시
'1대1 매칭그랜트'도 진행

삼성전자는 월드비전 '사랑의 빵 나눔 단말기'에서 '삼성 페이'로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국제구호개발 전문 비정부기구(NGO)인 월드비전과 함께 모바일 결제서비스 '삼성 페이'로 기부하는 '삼성 페이-사랑의 빵'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월드비전 사랑의 빵 나눔 단말기에서 삼성 페이로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삼성 페이 사용자들은 현금 없이도 스마트폰을 사랑의 빵 나눔 단말기에 터치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1회당 1000원을 기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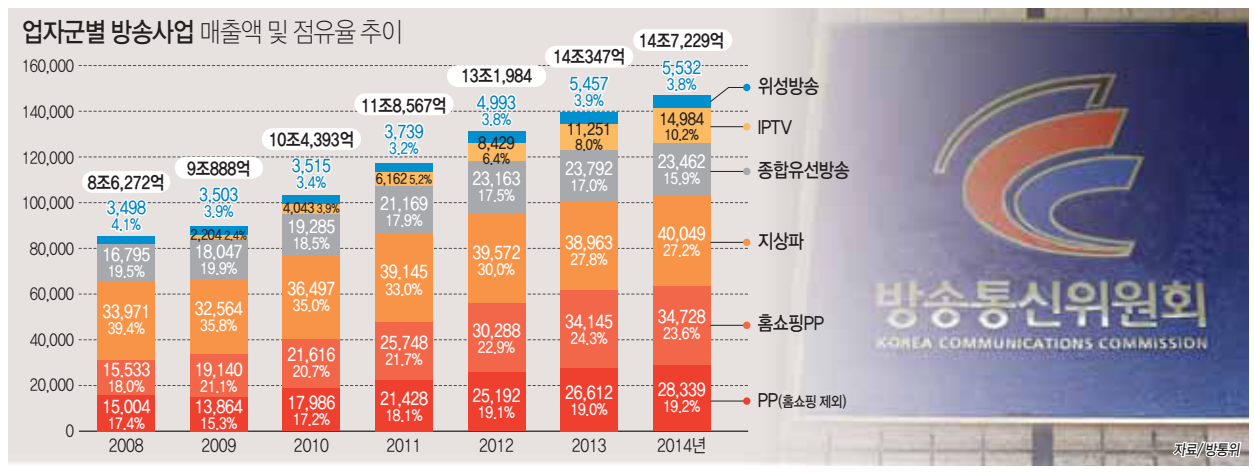
월드비전의 사랑의 빵 나눔 단말기는 국내 주요 관공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KB국민은행 등 전국 2000여 곳에 설치되고 연중 상시 운영된다.

삼성전자는 삼성 페이 기부 금액이 5000만원을 달성하면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1대1 '매칭그랜트'도 함께 진행한다. 매칭 그랜트란 기부자가 후원금을 지원하면 기업에서 동일한 금액을 조성해 추가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삼성 페이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국내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과 공부방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페이가 간편하게 실천하는 기부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방통위, 2015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발표

방송시장 4.9% 성장… IPTV·종편이 견인

매출액 14조7200억원 기록
가입자 1085만명… 24.6% ↑
케이블TV 실적은 감소 추세

지난해 방송시장은 전년 대비 4.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TV(IPTV)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후발사업자의 성장에 따라 유료방송 가입자 집중도와 방송광고시장 집중도는 감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은 담은 '201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일반적인 경쟁상황평가 절차에 따라 단위시장 획정, 평가지표 개발, 자료 수집 및 측정, 분석 및 평가의 단계로 진행됐다.

방송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획정했다. 시장별로 사업자 수, 시장 점유율 등 시장구조, 이용자의 대체서비스 선택가능성 등 대응력, 서비스 요금·품질 등 시장성과, 사업자 행위 등을 바탕으로 시장참여자 간의 경쟁상황을 평가했다.

방송사업 매출액은 지난해 14조72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간 대비 6900억원이 늘었다. 그 중 IPTV 사업 매출은 1조4984억원으로 전년비 33.2%(1조1252억원) 증가했다. 가입자 역시 지난 2013년 871만명에서 지난해 1085만명으로 24.6% 증가했다.

반면 케이블TV 사업자(SO)의 사업 매출액과 가입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0억원이 줄어든 2조3462억원을 기록했다. 가입자는 13만명이 감소한 1461만명이었다.

또 올해 6월 기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42.3%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통해 유료방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상품 가입자 중 77.5%는 IPTV를, 22.5%는 SO를 이용하고 있었다.

유료방송 가입자 중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2년 34.1%였던 점유율이 2013년에는 38.2%로, 2014년에는 41.4%로 늘었다. 결합상품 가입자는 지난해 말 대비 5.7% 증가한 1199만명이었다.

IPTV 가입자 수도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3년 보다 24.6% 상승한 수치다. 유료방송시장 가입자 증가분인 198만명보다 많은 214만명을 기록하면서 가입자 점유율(39.6%) 상승세도 지속됐다.

유료방송 시장집중도는 전체 78개의 권역에서 66곳이 1위와 2위 사업자의 점유율 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타나났다.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이상인 권역 수도 지난 2013년 51개에서 지난해 43개로 감소했다.

유료방송의 요금 수준은 SO는 하락했고, IPTV는 상승했다. 지난해 VOD 수입을 제외한 수신료 기반 가입자당 매출은 각각 5079원, 6967원으로 2013년 보다 889원 하락, 242원 상승했다.

IPTV 3사의 매출 중 주문형비디오(VOD)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67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1%(4331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유료방송 수신료 매출에서 VOD 매출 비중도 또한 17.7%에서 21.4%로 증가했다.

/정문경 기자

올림푸스한국, 비전 선포

"최고의 광학·의료기업 될 것"

오카다 나오키 올림푸스한국 사장이 최고의 광학·의료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올림푸스한국

올림푸스한국은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에서 임직원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수립된 올림푸스한국의 비전은 '최고의 광학·의료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고 한국사회의 건강과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이다. 소화기 내시경 분야 1위에 그치지 않고 외과 사업, 생명과학사업 등 각 분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번 비전은 약 5개월에 걸쳐 전 직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했다.

올림푸스한국은 향후 5년 간 효율성,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등에서 일류를 지향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 부문별 미션을 새롭게 설정했다.

지난 5월 한국에 부임해 이번 비전 수립 프로젝트를 지휘한 오카다 나오키 올림푸스한국 사장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명이자 존재가치"라며 "전 임직원의 의지를 모아 수립된 비전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ATM기 지원언어 더 추가하고… 휴일 영업도 선뜻…

신한銀의 따뜻한 금융… 국내거주 외국인 사로잡다

₩금융 사각지대를 없애라 ⑤ 신한銀, 외국인 특화서비스 주력

고령자 금융소외 우려 커져
사기예방 등 전문교육 강화

장애인용 '비대면 채널' 늘리려
화면 읽어주는 '센스리더' 적용

신한은행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휴일영업을 실시하는 탄력점포 원곡동외환센터에서 한 외국인이 업무를 보고 있다. /신한은행

은행들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한창이다. 금융 사각지대에 속했던 고령자·외국인 등의 고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은행들이 '잠재 고객' 잡기에 나선 것. 더불어 올 하반기 당국의 서비스 개선 방안에 따라 향후 금융 소외계층의 불편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글로벌 금융을 추구하는 신한은행은 외국인 특화 서비스를 비롯해 어르신을 위한 금융교육과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채널 등을 내놓으며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장기체류 외국인고객 130만명 중 지난 9월 말 기준 53만명이 신한은행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5만명 이상의 외국인 고객이 신규 가입하고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지난 2011년 외국고객부를 설립하고 외국인 왕래가 많은 지역 내 40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외국인 전용 창구(FCD)'를 선정했다. 이 창구에서는 다양한 언어와 외환업무가 가능한 직원이 외국인의 금융거래를 돕는다.

해외송금이 가능한 자동화기기(ATM)에는 2개의 언어를 추가해 10개의 외국어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국내거주 외국인 전용 페이스북을 운영해 영업점 직원과의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뱅킹 외국어서비스(신한S뱅크 mini)를 개발했다. 메뉴, 컨텐츠,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고객 평가단과 사전 면담을 해 실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고객맞춤형 서비스다.

고령자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어르신들의 금융사기 예방교육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이후 신한은행은 지난해 어르신 2006명에게 28회에 걸쳐 금융교육을 했다. 올해는 대상지역을 확대해 12회에 걸쳐 1285명의 어르신에게 교육을 했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는 비대면 채널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과 스마폰뱅킹에 '센스리더'를 적용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음성 전환되는 방식이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스크린 리더를 적용했다. 스마트뱅킹은 지난 2013년부터 '톡백(안드로이드 전용)', '보이스오버(아이폰 전용)'를 통해 읽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과 함께하는 전시, 미술체험교육을 하고 발달장애 청소년에 생활금융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신서비스와 도입과 외국인 고객의 국내 금융거래에 있어 불편과 차별이 없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직원의 언어력과 전문상담배양 등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하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IBK기업은행, 중기 근로자 가족에 치료비 4억원 전달

IBK기업은행은 23일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89명에게 치료비 4억원을 전달했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첫 번째줄 가운데)과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KB국민銀, 은퇴고객 수기공모해 가족여행 지원

KB국민은행은 23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은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한 'KB골든라이프 가족사랑 수기공모 이벤트'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은퇴'를 테마로 한 'KB골든라이프 가족사랑 수기공모 이벤트'는 가족간의 사랑과 응원을 통해 은퇴고객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 가는 스토리를 수필 형식으로 담은 수기공모 이벤트다.

KB국민은행을 거래하는 모든 고객이 대상인 이번 공모에는 총 180여건의 수기가 접수돼 최종 외부 전문가('아침편지 문화재단' 고도원 대표) 심사를 거쳐 31건이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1위(대상)부터 3위(우수상)까지 총 6명의 '행복여행상' 수상자와 가족을 초청해 윤종규 은행장이 직접 시상을 하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수상자에게는 여행전용 선불카드와 표창장이 함께 수여됐다. 이 카드는 가족여행에 사용된다. /김보배 기자 bobae@

신한銀,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과 '맞손'

신한은행은 23일 중구 태평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여성인재 양성과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용병 신한은행장과 조태임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수료한 여성을 직접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저금리 우대 대출을 지원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수강료 할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인재 양성에 기여해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은 전국 53개 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여성 맞춤형 재취업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간 9만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채신화 기자

까다로워진 건전성 규제… 국내은행 자본확충 비상

시스템적 중요은행 등 규제 강화
"건전성 규제 강화 시점 늦춰야
자본 추가 적립 시 수익성 악화"

"건전성 규제 강화 시점을 늦춰달라. 당장 자본을 추가 적립하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다."(12월 14일 '은행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한광주은행장 등)

국내 대형 은행들의 자본 확충 부담에 주름살이 늘고 있다.

내년부터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등 추가적인 자본 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 이상 적립하게 되면 일부 금융회사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적잖다.

◆시스템적 중요은행 어디?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총손실흡수능력(TLAC)으로 불리는 자본확충안 중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은행들이 '국제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은행(G-SIB)'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시스템적중요은행에 선정되면 BIS비율 기준으로 2016년부터 4년간 매해 0.25%씩 자본을 추가 적립하게 된다. 시스템적중요은행에는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연수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 과장 등 3명은 '우리나라의 D-SIB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17개 국내 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상위 5개 은행과 나머지 은행의 격차가 컸다"며 "D-SIB 규제 대상에 5개 은행을 선정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D-SIB 규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과 추가자본 부과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나 추가자본 규제 수준은 각국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D-SIB를 금융지주사로 적용할 지, 은행에 국한시켜 봐야 할 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지주사가 D-SIB선정되면 자회사인 은행도 동일한 비율로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추가자본규제에 미달할 경우 '바젤3'의 자본보전완충자본과 동일하게 이익배분 제한조치 (바젤 기준서 147항)를 적용해 자사주매입, 배당 등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은행 2019년까지 9%를 보통주 자본으로 적립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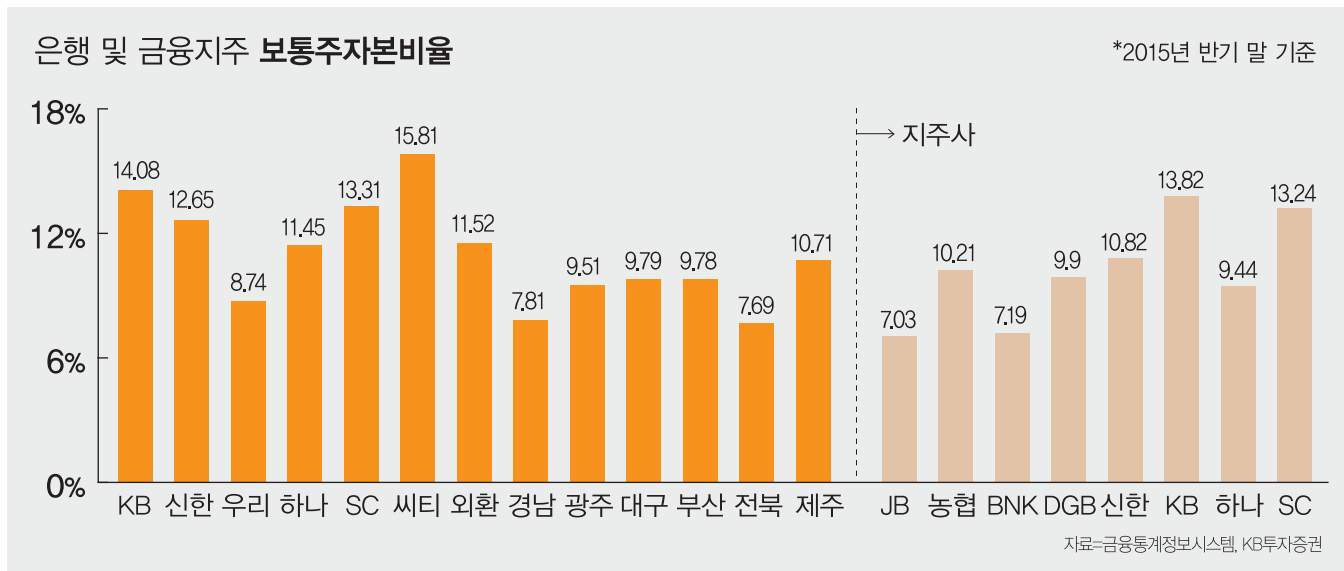
은행들의 부담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오는 2019년 까지 최소 보통주자본 비율(4.5%), 자본보전완충자본(2.5%), 경기대응완충자본(1% 추정) 등 총 9% 가량을 보통주 자본(CET1)으로 만 적립해야 한다.

상반기 말 현재 보통주자본비율이 9%를 밑도는 곳은 우리은행(8.74%), 경남은행(7.81%), 전북은행(7.69%), JB금융지주(7.03%), BNK금융지주(7.19%) 등이다.

KB투자증권 정대호 연구원은 "자본보전 완충자본과 경기대응 완충자본, 그리고 D-SIB에 선정된 은행의 추가자본 구성이 보통주 자본 (CET1)으로만 이뤄져야 해 보통주자본비율 확충을 위한 은행의 선제적 노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 우희성 연구원은 "금융권에서는 FSB의 TLAC를 바젤Ⅲ,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등과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은행권 규제강화의 핵심조치로 평가한다"며 "글로벌 규제수준을 추종하는 선진국 규제당국들이 유사한 부담을 국내 은행들에게도 부여할 가능성이 있어 TLAC 규제 최종안 통과 및 각국의 입법화 과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



세밑 증권街… 대우·현대 등 'CEO 인사'에 촉각

한투 유상호·신한금투 강대석 등 임기끝나는 CEO들 연임여부 눈길

사업 구조 개편, 물갈이 가능성도 급격한 환경변화에 세대교체 바람

유상호 사장 한국투자증권

강대석 사장 신한금융투자

장승철 사장 하나금융투자

나재철 사장 대신증권

김해준 사장 교보증권

여의도 증권가에 최고경영자(CEO) 교체 '인사태풍'이 예상된다. 임기 만료를 앞둔 CEO가 많기 때문이다. 실적 성적표는 물론 인수·합병(M&A) 성패 등에 따라 책임을 물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물갈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미 인원 감축 카드까지 꺼내며 덩치를 줄이거나 M&A로 승부수를 띄운 곳도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3개월여 안에 한국투자증권(유상호 사장), 신한금융투자(강대석), 하나금융투자(장승철), 미래에셋(조웅기·변재상), 대신증권(나재철), 교보증권(김해준), 하이투자증권(서태환) 등 대형증권사 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부분의 증권사 CEO가 자리를 지켰지만 증권업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세대 교체 바람'이 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CEO 연임 또는 교체에 '촉각'

해당 증권사는 연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 실적이 신통치 않은 데다 내년 업황도 밝지 않은 만큼 위기극복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중폭의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대우증권 등 인수·합병(M&)에 뛰어든 증권사들은 임원급에서 책임소재를 따질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관심은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다. 유 사장은 지난 2007년 취임 이후 자산관리와 투자은행(IB) 역량 강화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을 업계 최대 이익을 내는 증권사로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유 사장이 9번째 연임에 성공해 최장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기록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KDB대우증권 인수전이라는 변수가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오너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이 이번 인수전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뚝심'에 밀린 형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증권 특유의 '짠돌이 문화'가 있는데 처음부터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었다"면서 유 사장의 연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 사장은 인터넷전문은행('한국카카오은행') 예비인가에 공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임원급 인사가 끝난 미래에셋증권은 CEO 연임 여부만 남겨 놓은 상태다. 가격 측면에서 대우증권 인수가 유리한 상황이어서 CEO자리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1일 마감한 대우증권 매각 본입찰에서 2조4000억원대 초반의 인수가격을 제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이처럼 월등한 인수 가격을 제시한 것은 오너인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인수 의지가 그만큼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박 회장은 본입찰 전날이자 휴일인 지난 20일에도 실무자로부터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오너 경영의 진가가 발휘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한다.

또한 박 회장의 성품이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한 번 믿은 동료는 끝까지 함께간다"는 주의로 정평이 나 있다.

◆ 주인 바뀌는 대우증권 CEO는?

피인수 대상 기업인 대우증권의 홍성국 사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홍 사장은 지난해 12월 8개월의 임기를 남겨둔 상태로 중도 사퇴한 김기범 전 사장의 후임으로 사장자리를 꿰찼다. 시장과 내부 의견은 반반이다. 대우증권이 매각될 경우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 '한 지붕 두집 살림'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홍 사장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대증권 윤경은 사장의 앞날도 관심사다. 현대증권 매각 무산으로 기사회생한 윤 사장은 다시 한 번 험난한 길을 걷게 됐다. 올해 초 재선임된 윤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18년 3월까지다.

일단 '계열사 우회지원'건으로 금감원에서 해임권고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윤 사장의 잔여 임기는 보장된다. 그러나 만약 윤 사장이 금감원의 사전 통보 내용대로 중징계를 받는다면 향후 재취업 시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윤 사장은 노조와도 껄끄러운 관계다.

김해준 교보증권 사장의 연임은 무난할 전망이다. 김 사장은 올 3분기까지 593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의 실적달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무난한 연임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교보증권은 3분기까지 이미 올해 연간 순이익 목표를 넘어섰다. 김사장은 업황 불황에도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양호한 경영성과를 이뤄낸 점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2008년부터 하이투자증권의 수장을 맡아온 서태환 사장도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 사장은 하이투자증권이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로 편입될 당시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다.

장승철 하나금융 사장과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의 자리에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내년 3월 임기와 함께 자리를 떠난다. 후임으로 여승주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전략팀장(부사장)이 내정된 상태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KB투자증권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자신의 투자유형맞는 배분 조절을…

㉗ 美 금리인상 인한 해외채권 시장전망

해외채권 배분 비중 관리 필요
저평가 받던 국가, 매력도 부각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현재의 0.00%~0.25%에서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금리 인상은 기존 전망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급격한 시장 변동성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금리 상승에 대비 투자 유형별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만약 자신이 위험중립형 투자자라면 추가적인 미국 금리인상과 미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에 대비해 해외채권에 대한 자산배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이 기존 전망보다 더 느리고 더 작은 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또 유럽과 일본의 통화완화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글로벌 금리의 상승 제한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때 가격 반등을 감안 적극투자형이나 공격투자형 투자자의 경우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해외채권 비중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신흥국 채권의 경우 미국 금리인상 여파는 인상 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다. 위험중립형 투자자라면 미국의 금리인상이 신흥국의 자본유출로 이어질 경우, 신흥국 전반의 자산가격 하락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배분비중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흥국의 리스크 확대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될 만한 국가들도 있다. 미국 금리인상이 과거보다 낮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미국 성장모멘텀이 과거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미국 금리인상의 신흥국 영향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그 동안 불확실성으로 상대적으로 소외 받았던 인도와 같은 저평가된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수익률 제고 관점에서 투자매력도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실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자산배분전략팀 선임연구원

KB WM CAST 앱을 통해 자세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 리의 파격 대리·과장 등 승진자 전원, 광고로 축하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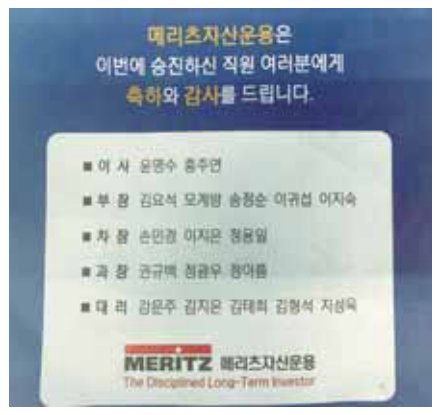
임직원 절반인 승진자 18명
'성탄선물'로 전체 명단 게재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동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을 작사·작곡한 아동문학가 정근씨의 작품이다. 어렸을 적 누구나 흥얼거리던 정겨운 노래이다. 어쩌다 텔레비전에 모습이 비춰지기라도 하면, 마치 가문의 영광인 듯 온 동네에 떠들고, 즐거워하기도 했을 것이다.

23일 하루 원 없이 소원을 푼 사람들이 있다. 메리츠자산운용의 승진자들이다.

이날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깜짝 인사를 발표했다. 국내 주요 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임직원의 승진을 축하한 것.

'메리츠자산운용은 이번에 승진하신 직원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18명의 승진자 명단을 게재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전체 임직원이 약



40명이어서 절반 정도가 승진한 것이다. 승진자 명단에는 이사(2명)부터 부장(5명), 차장(3명), 과장(3명), 대리(5명)까지 모든 이들의 이름이 실렸다.

이들이 갖는 느낌은 수십억의 광고 효과 이상이지 않을까(?).

깜짝 선물을 생각해 낸 사람은 존 리 대표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한 선물이 없을까 고민 끝에 '광고'를 택했다고 한다.

메리츠자산운용 관계자는 "존 리 대표의 뜻에 따라 광고라는 특별한 매개체를 통해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존 리 대표의 실험은 처음이 아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사옥을 여의도에서 북촌으로 옮겼다. 시장과 멀어지기 위해서다. 직원들 반대가 거셌지만 리 대표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선수들끼리 모여 있으면 생각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며 "시장 바깥에서 투자 해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옥 이전은 시작에 불과했다. '보여주기 식' 문화도 하나씩 없앴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 복장을 직원 자율에 맡기고 보고서와 '보고를 받는' 본부장 직급도 없앴다.

억지로 일해서는 자율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투자는 오랫동안 하는 마라톤인데 100m 성적을 따지면 레이스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꼴찌 회사를 1년만에 정상급 회사로 만든 존리 대표의 생각이 어디로 튈지 궁금하다. /김문호 기자

계열사에 쓴소리하는 삼성증권… '제식구 감싸기'는 옛말

같은그룹 '호텔신라' 목표주가 낮춰

'누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 했던가'.

삼성증권이 그룹 내 계열사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어머니나 형제 기업에 후한 점수를 줘 '제식구 챙기기'라는 눈총을 사고 있는 증권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는 스마트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늘면서 '눈가리고 아웅'식의 보고서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삼성증권은 최근 국내 면세사업의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호텔신라의 목표주가를 종전 16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내렸다.

양일우 연구원은 23일 "내년 국내 면세사업의 영업이익률을 6.4%로 종전보다 1.4%포인트 내렸다"며 "이런 환경에서 신규 시내 면세 진입자들은 이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연구원은 "면세 사업자 변경 이후 라이선스 갱신 여부가 향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됐고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수익성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이 동사에 대한 시장의 주된 우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인 입국자도 견조한 증가세"라면서 호텔신라에 대한 '적극매수' 투자의견은 종전대로 유지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9월 삼성엔지니어링과 합병설이 돈 삼성중공업의 주가 급등에 대해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합병 여건이 작년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 급등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한영수 연구원은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이 지난 9월 15일 장기적으로 (합병을 통해) 한 회사가 되는 게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추진 시기에 대해 '지금은 양사 사정이 어려우니 상황을 봐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다소 유보적 입장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인도 중소형주 집중투자하는 펀드 출시

신한금융투자는 인도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해 중장기 성과를 추구하는 '삼성인도중소형포커스(FOCUS)펀드'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인도중소형FOCUS펀드'는 '모디노믹스'의 수혜를 받으며 지속 성장 가능한 인도 중소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벤치마크 지수는 뭄바이 증권거래소(BSE)의 중소형주 지수(MidSmallcap Index)이다. '삼성인도중소형FOCUS펀드'는 인도 최대의 운용사인 릴라이언스 캐피탈 자산운용의 자문을 토대로 삼성자산운용 홍콩법인이 운용한다. 펀드의 총 보수는 연 2.26%(Class C1 기준)이며 투자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손님 와도 걱정 없어요” 게스트하우스 아파트 돌풍 예감

호텔 숙박료보다 저렴하고
시간 제한·외부 간섭도 없어

합정 메세나폴리스 게스트하우스
파티·패밀리룸 등 4가지 콘셉트
연말 연초 각종 모임장소로 주목

메세나폴리스 패밀리룸(왼쪽)과 스파룸.

스마트폰 등 이동식 정보기술(IT) 기기 서버공간을 원하는 시점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주거공간도 실수요자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하우징 개념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내부공간에서 하기 어려웠던 활동을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해 해결하는 것이다.

최근 단지 내에서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지인끼리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모임공간으로 게스트하우스(guest house)가 주목받는 점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고급주택 등에서 볼 수 있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단지 내 4~5베이나 3면 개방 등 평면 설계 적용과 함께 특화 커뮤니티시설로 게스트하우스가 적용된 단지들이 속속 공급되고 있다.

권일 부동산 인포 리서치팀장은 “게스트하우스의 장점은 호텔숙박비보다 저렴한 가격에 손님이 편하게 머물수 있다는 점과 입주자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건설사 간 특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만큼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가 잘 되는 단지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이 마포구 합정역 일대에 분양중인 고급주상복합 메세나폴리스 게스트하우스는 입주민의 이용도가 가장 높은 커뮤니시설 중 하나로 꼽힌다. 평상시 주말에 이용하려면 전달 초에 미리 예약해둬야 한다. 연말·연초 모임 잦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곳의 여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주 이용객은 입주민의 친인척이나 지인이다. 입주민들은 친인척을 초대해 가족모임을 하거나 지인을 불러 연말·연초 모임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메세나폴리스는 공항철도가 다니는 홍대역이 한 정거장 위치에 있고 합정역과 단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편리한 교통으로 지인이 외국에서 왔을 경우에도 이용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메세나폴리스 내 게스트하우스는 파티룸, 패밀리룸, 스파룸, 비즈니스룸 등 4가지 콘셉트로 마련됐다.

파티룸은 약 45평으로 4개 타입 중 가장 넓다. 단체 모임이 가능한 넓은 거실과 넓은 식당공간이 확보돼 있다. 야외테라스도 마련돼 있어 식사 공간으로 따로 활용할 수 있다. 하루 숙박 가격은 16만5000원이다.

패밀리룸은 약 25평이며 방 2개와 거실로 구성됐다. 거실에는 가족끼리 단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대형소파가 마련돼 있다. 하루 숙박 가격은 13만2000원이다. 비즈니스룸은 약 23평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책상이 제공된다. 하루 숙박 가격은 7만7000원이다. 스파룸은 약 35평의 공간에 피로를 풀 수 있는 스파 시설이 집 한가운데 마련돼 있다. 하루 숙박 가격은 11만원이다.

주부 이모(40)씨는 “얼마 전 큰 아이 같은 반 엄마 몇 명과 파티룸에서 모임을 가졌는 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다”며 “각자 집에서 싸온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정보를 교류하고 돈독한 정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고 말했다.

윤모(50)씨는 “대구에 사는 동생 가족이 새벽 비행기를 타야 할 상황이었는데, 공항근처 호텔 대신 아파트 내 게스트하우스로 불러 하룻밤 숙박을 했다”며 “공항까지 간편하게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20만원 가까이하는 호텔 숙박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호텔 수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고 덧붙였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워크아웃 졸업’ 앞둔 금호산업, 분양도 훈풍

신규 수주 실적 2조5000억원
구미 형곡 금호어울림 포레 등
전국 3곳서 지역내 1순위 기록

금호산업이 연말 워크아웃 졸업을 앞두고 재기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 공급한 주택사업이 잇달아 성공하며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신규 수주 실적을 올렸다.

금호산업이 올해 분양한 사업장은 전국 3곳 2697가구다. 경북 구미 형곡 금호어울림 포레 486가구, 충남 아산 모종 캐슬어울림2차 794가구, 세종시 2-1생활권 더 하이스트 1417가구가 모두 지역 내 1순위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세종시를 제외한 구미, 아산 구도심 등 분양성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완판에 성공했다.

지난 4월 구미 형곡동에 공급했던 형곡

‘동탄2신도시 금호어울림 레이크’ 조감도.

금호어울림 포레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70가구 모집에 9781명이 몰리면서 최고 11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분양 3개월 만에 완판했다. 같은 달 충남 아산에 공급했던 아산 모종 캐슬어울림 2차는 348가구 모집에 3079명이 접수하면서 최고 34.4대1, 평균 8.85대1의 경쟁률로 계약 한달 만에 다 팔렸다.

9월 세종시에 공급한 세종시 2-1생활권 더 하이스트도 평균 58.7대 1로 올해 세종시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계약한달 만에 완판했다.

이같은 분양 성공 기조는 연말까지 이어졌다. 금호산업은 이달 동탄2신도시 A91블록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인 동탄2신도시 금호어울림 레이크 아파트 분양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지하2층 지상 14~25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812가구로 조성된 단지는 전 가구가 중소형이라 실수요층의 관심이 높았다.

단지 인근에는 동탄 호수공원(워터프론트 콤플렉스, 164만2000㎡)가 조성되며 단지 내에는 초등학교를 비롯해 도보 2분 거리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가 나란히 신설될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11월 주택 인허가 6만2823가구

전년 동기 대비 27.7% ⬆
착공 실적 7만3351여 가구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인허가 물량이 6만282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7.7%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올 들어 1~11월 누적된 물량은 66만7163가구로 전년 동기 44만5984가구에 비해 49.6% 증가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2만610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349가구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방은 3만6720가구로 부산·대구·경남 등에서 물량이 60.8%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만4658가구(29.6%) 늘었고 나머지 주택은 1만8165가구로 23.3% 증가했다.

전국 착공 실적은 11월 7만3351가구, 1~11월 누적 63만4325가구로 각각 28.5%, 42%가 늘었다. 서울과 수도권이 3만9299가구로 66.8% 늘었고 지방은 3만4052가구로 1.6% 소폭 증가했다.

분양(승인) 실적은 11월 7만3336가구, 1~11월 누적 49만336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0.4%와 50.5%가 늘었다. 서울과 수도권은 4만3498가구로 125.3%가 늘었고 지방은 2만9838가구로 26.7% 증가했다.

/박상길기자

내년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 4만7304가구

올해보다 71.5% 증가
최대 격전지는 서울 강남
1만6000가구 공급 예정

내년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 물량은 4만7000여가구로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다.

2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 물량은 올해 2만7575가구보다 1만9729가구(71.5%) 증가한 4만7304가구가 공급된다.

재건축 1만6126가구, 재개발 3만1178가구다. 내년에 공급되는 일반 분양물량 29만1343가구의 16.2% 수준이며 올해 분양 비중(7.1%)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들어 부동산 시장이 규제 완화와 매수세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되면서 정비사업이 속속 재개된 데 따른 결과”라며 “특히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 또는 이주가 임박했다가 중단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들 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재건축 시장 최대 격전지는 서울 강남권으로 약 1만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개포주공2단지와 개포주공3단지, 개포시영 등 3개단지에서 내년 상반기 72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개포주공3단지는 현대건설의 고급 브랜드인 ‘디에이치’가 최초로 공급된다. 1235가구 중 73가구가 내년 6월 분양된다.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개포시영’과 ‘개포주공2단지’는 각각 204가구, 445가구를 내년 상반기 일반 분양한다.

강동구에서는 고덕지구에서 일반 분양물량이 공급된다. 고덕주공2단지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SK건설이 시공해 3381가구 대규모 단지로 거듭난다. 이중 1460가구가 내년 6월 일반분양된다.

11월에는 롯데건설이 ‘고덕주공7단지’를 1761가구 규모로 재건축해 이중 871가구를 분양한다.

지방에서는 한화건설이 1월 경남 창원에 일반분양 80가구, 삼호가 대구 중구 대신동에 일반분양 328가구를 분양한다. 우미건설은 강원 춘천 후평주공3단지를 1795가구로 재건축해 이중 800가구를 6월에 분양한다.

재개발 물량 3만1000가구 중 서울에는 1만1000여 가구, 부산에 1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흑석뉴타운과 장위뉴타운, 수색증산뉴타운 등 뉴타운 6곳에 45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효성이 6월에 경남 창원시 석전동에 772가구, 현대산업개발이 11월에 경북 구미시 원평동 원평1구역에 658가구를 분양한다. /박상길 기자

‘빚 못 갚아도 집만 경매 넘기면 끝’

국토부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출시
28일부터 3개월 간 신청

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로 잡힌 주택만 경매에 넘어가고, 다른 소득·자산은 추징당하지 않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 방식인 디딤돌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28일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유한책임대출 방식의 대출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책임이 담보물(집)에 한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한책임대출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올해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주택담보대출에 이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원이 한정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에 빚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적용하는 만큼 중·하위계층에 혜택이 먼저 돌아가게 했다. 이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한정됐다.

일반 디딤돌대출을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이면 7000만원)가 빌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 기준은 확대됐다. 국토부는 전체 디딤돌대출 가운데 40~45%가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유한책임대출 대상 주택을 따로 두지는 않고 일반 디딤돌대출(6억원·85㎡ 이하)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 노후도나 입지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유한책임대출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로 대출을 승인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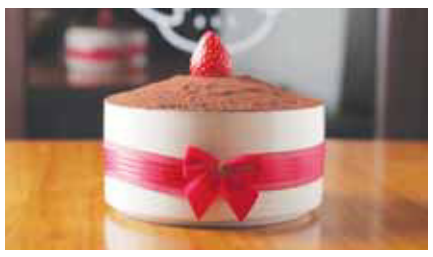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6곳에 28일부터 3개월간 신청된 디딤돌대출 가운데 요건에 맞는 모든 대출은 유한책임방식으로 취급된다. /박상길 기자

새로 나왔어요

롯데주류 '순하리 처음처럼'

병 제품의 10배 용량 페트 출시

롯데주류가 '순하리 처음처럼' 페트(PET) 제품(사진)을 출시한다. 페트로 출시되는 '순하리 처음처럼'은 기존 병으로 출시됐던 유자, 복숭아, 사과를 포함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순하리 처음처럼 소다'까지 총 4개 제품이다. 용량은 병 제품보다 40㎖ 많은 400㎖다. 알코올 도수는 유자 14도, 나머지 3종은 12도이고 출고가는 1290.5원이다. /유현희 기자



설빙 '한초코설빙'

케이크·빙수·초콜릿 조화

설빙이 신메뉴 '한초코설빙'(사진)을 선보인다. '한초코설빙'은 '한딸기설빙'의 후속제품으로 딸기 대신 달콤한 초코로 맛을 낸 것이 특징이다. 케이크, 빙수 그리고 초콜릿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맛 디저트의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설빙은 '한초코설빙' 출시를 기념해 구매영수증 하단에 인쇄된 응모번호를 설빙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스페셜라이즈 자전거를 비롯한 경품을 제공한다. /유현희 기자

CJ그룹 정기임원인사 단행

CJ그룹은 23일 상무대우 33명을 승진시키고, 박근태 중국본사 대표 등 43명을 이동시키는 201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관련인사 17면〉

CJ그룹은 "그룹 최고경영진의 장기 부재라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기존 임원들에 대한 승진인사 없이 신임 임원만 승진 발령했다. 2016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직재정비와 보직 변경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CJ그룹은 통상 연말에 신임 임원 20~30명을 포함 90여명 규모의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해왔다. 하지만 그룹 CEO인 이재현 회장의 장기 부재로 2015년 인사에서 신임 임원 13명만 승진시킨 데 이어 올해도 현장 중심으로 신임 임원 33명을 예년보다 축소해 승진시켰다.

CJ그룹은 박근태 중국본사 대표를 CJ대한통운 공동대표이사 겸직으로, 김춘학 CJ건설 대표이사를 케이컬처밸리(K-Culture Valley)를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추진단장 겸직으로 발령하는 등 총 43명의 보직을 변경했다. 이철희 중국본사 운영총괄은 중국본사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신설된 사회공헌추진단에는 변동식 총괄부사장이 단장으로 임명됐다. 사회공헌추진단은 CJ나눔재단과 CJ문화재단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과 CSV경영 실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CJ그룹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실경영을 통해 그룹 초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5년의 저주' 면세사업권, 승자도 패자도 운다

'명품의 덫' 걸린 신규사업자 속앓이
탈락사업자는 고용·재고처리 골머리

면세사업권이 5년마다 갱신되면서 사업권을 새로 따낸 면세점과 사업권을 잃은 면세점 모두 적지 않은 내홍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롯데면세점. /연합뉴스

5년짜리 시한부 면세점 사업권으로 인한 후폭풍이 멈추지 않고 있다.

개점 준비에 한창인 신규 면세점 허가업체들은 명품브랜드 유치가 여의치 않아 고민이다. 사업권 수성에 실패한 기업들은 고용 승계와 재고 정리 등으로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된 용산 아이파크몰의 HDC신라면세점은 24일 오픈한다. 여의도 63빌딩의 한화갤러리아의 '갤러리아면세점 63'도 28일 개점을 앞두고 있다. 정식개장에 앞선 시범 개장이지만 명품브랜드 입점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다.

◆수퍼 갑이 된 명품브랜드

면세점 최대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 유커는 명품브랜드에 열광한다. 이는 '유커 유치=명품 브랜드'를 의미한다. 5년짜리 사업권으로 언제 면세사업권이 박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면제점 입점의 주도권은 명품브랜드가 쥐게 마련이다. 샤넬·에르메스·루이뷔통 등 명품 브랜드들은 새로 영업권을 따낸 면세점에 입점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할 수 밖에 없다. 슈퍼 갑의 지위에 있는 셈이다. 결국 신규 면세점 두곳은 명품 브랜드 없이 일단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 정부가 연내 개점을 재촉한 것도 두 면세점이 명품 유치보다 개점을 서두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다.

지난달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와 두산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신세계는 기존 백화점을 통해 명품 브랜드와 꾸준히 접촉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소비재 사업을 거의 중단했던 두산은 접점 찾기도 쉽지 않다.

◆탈락 면세점 고용승계 어쩌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등 면세사업권 수성에 실패한 기업들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달 16일이 특허 만료였던 워커힐은 관세청으로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24년 만에 면세점 사업을 접게 된다. 월드타워점(특허권 만료일 12월 31일) 역시 관세청으로부터 유예기간(3개월)을 받았다.

탈락 업체들은 최장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워커힐점은 내년 5월, 월드타워점은 6월에 문을 닫게 된다.

이들은 폐점일까지 재고 처리와 함께 고용승계를 고민해야 한다. 월드타워점에는 롯데 소속 직원 150여명과 입점 브랜드 파견직원 1000여명 등 1300명가량이 근무하고 있다. 워커힐면세점에는 면세점 소속 직원 200명가량과 입점 브랜드 파견직원 700명가량 등 약 900명이 일을 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여직원들은 고용 안정 보장과 현행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시한부 면세사업권이 '5년의 저주', '5년의 악몽'이라고 불릴 만큼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기존 사업자에게 가점을 주는 등 5년마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신청자를 같은 선상에 두고 평가하는 현행 심사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도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면세점 제도 개선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홈플러스, 크리스마스 케이크 페스티벌 홈플러스는 25일까지 15종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9900원부터 2만7000원에 판매한다. 크리스마스 디자인으로 출시된 케이크 외에도 평소 고객들의 수요가 많은 생크림 카스텔라, 쿠키, 엔젤링 등도 선보인다. 23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신동빈의 꿈' 平 최고 제과사 결실
롯데제과 해외누적매출 5조원 돌파

해외 진출 11년만의 성과

롯데제과가 해외 진출 11년만에 누적 매출 5조원을 돌파했다.

롯데제과는 해외 시장에 진출한 이후 올해 3분기까지 5조348억원의 해외 누적 실적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롯데제과는 현재 카자흐스탄, 벨기에, 파키스탄, 인도, 중국, 베트남, 러시아, 싱가폴 등 8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해외시장에 21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해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수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특히 인도의 경우 롯데초코파이는 시장점유율이 90%에 육박할 만큼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롯데제과는 신동빈 회장을 리더로 아시아에서 넘버원 제과회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롯데제과는 현재 전체 매출 실적 중에 해외시장 부분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이를 40%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제과회사를 통해 현재 매출 기준 7~8위 수준을 5위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현희 기자

인도에서 롯데 초코파이는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할 만큼 인기다. 사진은 인도 뉴델리 초코파이 공장. /롯데제과

플레이텍스 탐폰 철수에 국내 경쟁사 반사이익

사업부 분사하며 국내 유통사 못찾아
유한킴벌리, 2년전 보다 3배 이상 ⬆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회사원 김혜연(36)씨는 올해 국내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해외에 있을 때 자주 사용하던 삽입형 생리대 플레이텍스 탐폰을 국내에서도 사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 제품을 구입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그간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했지만 요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플레이텍스 탐폰의 국내 품귀현상이 국내 경쟁업체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플레이텍스 탐폰은 지난 3월 한국 공급 중단을 통보한 후 물량을 축소해왔다. 국내 판매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플레이텍스 탐폰 마니아들은 해외 직구로 근근히 제품을 구입해왔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판매가 완전히 중단된 플레이텍스 탐폰이 일부 해외 공장까지 생산을 중단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여성 위생용품시장은 삽입형과 패드형 제품으로 나뉜다. 아직까지 국내는 패드형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활동적인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삽입형 생리대의 시장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07년 89억원 수준이었던 삽입형 생리대 시장은 지난해 123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레이텍스 탐폰의 철수가 글로벌 본사의 퍼스널케어 사업부 분사로 인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업부를 분사하면서 기존 국내 총판이었던 에너자이저코리아가 더이상 제품을 유통하지 않게 됐다. 이 사업부에서는 쉬크, 바나나보트 등의 브랜드도 함께 취급했는데 두 브랜드의 유통은 LG생활건강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플레이텍스의 총판권은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플레이텍스 탐폰의 국내 유통 중단으로 국내 경쟁 브랜드들은 올해 큰 폭의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특히 유한킴벌리는 최근 1년간 매출이 35억원대로 2년전 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업계 1위인 동아제약 '템포'는 같은 기간 5% 가량 매출이 증가했다. 템포의 국내 판매량은 최근 1년간 69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플레이텍스 탐폰은 지난해까지 부동의 2위 자리를 지켰지만 올해 유한킴벌리에 자리를 내줬다.

앞으로도 플레이텍스 탐폰 마니아의 추가 이탈도 예상된다. 해외 일부 공장에서도 생산이 중단되면서 직구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위가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1위와 3위 브랜드로 제품을 대체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며 "후발주자인 피앤지나 일동제약도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삽입형 생리대 각 사별 매출〉 (단위: 백만원)

구분	판매액		
	2012. 12~2013. 11	2013. 12~2014.11	2014.12~2015.11
동아 탐폰 템포	6,751	6,677	6,909
에너자이저 탐폰 플레이텍스	2,713	2,209	926
피앤지 탐폰 탐팩스	962	648	452
유니참 탐폰 참	1	-	-
일동제약 탐폰 나트라케어	264	174	133
유한킴벌리 탐폰 화이트	1,038	1,962	3,581

〈연도별 삽입형 생리대 시장규모〉 (단위: 백만원)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시장규모	8,873	8,994	9,638	10,411	10,953	11,924	12,339	12,291

자료=업계

신세계인터 '화장품 제조' 뛰어든다

글로벌 OEM 화장품사 伊 인터코스와 손 잡고 합작법인 설립…꼬 공략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화장품 제조업에 진출한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사 인터코스와 손잡고 합작법인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를 설립한다고 23일 밝혔다.

인터코스는 샤넬, 랑콤, 에스티로더, 디올 등 전세계 300여 사와 거래하고 있는 글로벌 1위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자개발생산) 기업이다. 합작 법인의 지분율은 50 대 50이며 대표이사는 인터코스코리아의 법인장인 김왕배 씨다.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 신세계인터내셔날은 화장품 제조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화장품 제조부터 유통까지 뷰티 사업을 위한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다. 인터코스는 한국 시장을 발판으로 삼아 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 제품.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2012년 프리미엄 색조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를 인수하면서 화장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스웨덴 향수 브랜드 '바이레도'와 화장품 편집샵 '라 페르바'를, 올해 1월에는 이탈리아 브랜드 '산타 마리아 노벨라'를 잇달아 인수하며 화장품 사업을 확장해왔다.

양 사의 합작법인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는 최첨단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 오산시 가장산업단지 내에 생산공장과 R&D 혁신센터를 만들고 이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는 2020년까지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인터코스는 40여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화장품 OEM·ODM 전문 회사로 로레알, 에스티로더, 샤넬, 디올 등 글로벌 브랜드의 색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본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으며, 전세계에 9개 연구소, 12개의 생산 공장, 13개의 마케팅 오피스를 보유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국내최대 '인디음반 축제' 내년 1월 말까지 열린다

KT&G 주최로 서교동 상상마당 갤러리서

KT&G는 국내 최대 인디음반 축제인 'KT&G상상마당 레이블마켓(LABEL MARKET)'을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서울 서교동 KT&G상상마당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2007년을 시작으로 올해 9회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장르의 음반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침체된 음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렉트릭 뮤즈,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등 40여곳의 음반사와 개별 뮤지션들이 참여하며, 방문객들은 400여개의 음반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듣고 구매할 수 있다.

'2015년 나와 함께한 음악' 코너도 함께 운영된다. 이 곳에서는 권나무, 리스펙츠, 신세하 등 뮤지션 6팀이 선정한 올해의 음악들을 대상으로 디자이너와 일러스트 작가들이 재구성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또한 KT&G가 신인 뮤지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써라운드(S.around)' 프로그램에 선발된 팀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KT&G 관계자는 "인디음악이 새로운 시도와 참신한 아이디어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재능 있는 뮤지션들이 대중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뜻깊은 축제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T&G는 지난 11월 24일 '비주류 문화 육성'이라는 특화된 분야에 메세나 활동을 집중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5 메세나 대상'에서 대상(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KT&G는 그동안 비주류 장르의 지원 및 창작자 육성은 물론이고 지역 시민과 젊은 층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유현희 기자

롯데하이마트 소방대원에 가전제품 쐈다

3000만원 상당… 사회공헌 일환

롯데하이마트가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우 대표이사,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무소방대원을 위한 가전제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TV, 냉장고, 세탁기 등 30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은 경기지역 소방서 내 의무소방대원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관 14 곳에 전해진다.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는 "위험한 화재현장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소방대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롯데하이마트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3월 육군 제 15사단 최전방부대에 TV 기증을 시작으로, 6월에는 공군본부에 에어컨을, 지난달에는 전국 해양의무경찰 생활관에 PC를 기증했다. 또 서울수서경찰서와 더불어 6월에 독거노인 100명에게 선풍기를, 10월에는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원을 대상으로 아동도서 4000권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오른쪽)와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무소방대원을 위한 가전제품 전달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는 이밖에도 독거노인, 소외아동, 장애인 등 지역 사회의 여러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전국 560여 조손(祖孫)가정과 결연을 맺고 후원하는 '행복 3대 캠페인'을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2010년부터는 아프리카 케냐 아동들과 결연을 맺고 후원하는 '굿모닝칠드런 캠페인'도 진행중이다. 또 지난달에는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서울 광진구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했으며, 지난 8일에는 중계동 백사마을 달동네를 방문해 연탄을 배달했다.

/유현희 기자

"겨울 건강 책임집니다"

산들건강, 기능식품 선봬

산들건강(isandle.co.kr)이 변한의원과 제휴를 통해 신제품 '보산제'와 '호장탕'을 출시한다. 천연 약재를 발효시켜 제작하는 '호장탕'은 장내 유산균을 늘리는 데 탁월하다. 호장탕 역시 보산제와 같이 제월당에서 만드는 제품이다.

'보산제'는 밀가루와 당분 섭취를 많이 하는 통에 소화불량이나 역류성식도염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다. '호장탕'은 소화를 방해하는 음식 섭취, 스트레스 등으로 과다 증식된 장내 유해균을 죽이고 유익균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변한의원은 고종황제의 어의였던 변석홍 선생의 5대손이 운영하는 한의원이다. 변한의원은 5대째 어의 비법을 이어오고 있다.

산들건강은 신제품 출시와 함께 겨울을 맞아 기관지염과 천식에 효과가 있는 '청폐고(사진)'도 추천했다. '청폐고'는 만성비염 폐렴, 천식, 기관지염, 폐질환을 동반한 기침과 가래, 목의 통증에 탁월한 개선효과를 보여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나 노인들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폐렴과 비염을 예방함으로써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집중력 향상을 도와준다.

문의: 02-778-4568. /유현희 기자

이대목동병원 인체조직기증원과 기증활성화 협약

이대목동병원은 최근 한국인체조직기증원과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통한 생명나눔 문화 확산 및 안전한 인체조직 이식재의 국내 자급자족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승철 이화의료원장과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정구용 장기이식위원장 등 경영진과 전태준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상임이사와 서종환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잠재 기증자 발굴을 위한 병원-기증원 간 협업 시스템 구축 ▲병원 내 인체조직기증 관련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병원 내 잠재조직 기증자 발생 시 기증을 위한 의뢰 시스템 구축 ▲조직 기증자의 행정지원 등을 서로 지원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인체조직기증은 화상·골절·시각 질환 등 평생 장애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웃을 위해 사후에 피부·인대·각막·심장판막 등 조직을 기증해 100여명이 생명을 연장하고 장애 없이 보다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나눔 활동이다.

김승철 이화의료원장,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전태준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상임이사, 서종환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왼쪽부터). /이대목동병원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은 "인체조직 기증이야 말로 고귀한 생명을 살린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참여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백화점그룹 '도로명주소 활용' 최우수

현대백화점그룹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5년 도로명 주소 활용 우수기업 정부포상'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현대홈쇼핑은 대통령 표창을, 현대백화점은 국모총리표창을 수상한다.

도로명 주소 활용 우수기업 정부포상은 주소 사용량이 많은 89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소 사용 실태를 조사해 도로명 주소 활용도가 높은 기업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주관한다.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회원 정보의 도로명 주소 전환 ▲소비자 상품 주문 시 도로명 주소를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내 문서 도로명 주소 전면 표기 등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김성현 기자 minus@

식음료업계 '할랄 인증' 잇따라

매일유업 조제분유 등 3종 6개제품 통과

매일유업은 인도네시아 울레마협의회(MUI)에서 조제분유, 멸균유, 주스 블랜드 등 3종 6개 제품에 대해 할랄(Halal)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MUI는 말레이시아의 JAKIM, 싱가포르 MUIS와 함께 대표적인 할랄 인증 기관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 2억 5000만 명 가운데 87%가 회교도인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다.

매일유업이 이번 MUI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조제분유 매일맘마, 멸균우유, 주스블랜드 등 총 6개 제품 이다. 내년에는 JAKIM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들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에 붙여진다.

인증을 받은 식품은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임을 의미한다. 할랄 식품은 세계 식품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유현희 기자

롯데칠성음료 밀키스·알로에, 무슬림도 마신다

롯데칠성음료가 밀키스와 알로에주스(사진)로 무슬림 시장 공략에 나선다. 롯데칠성음료는 밀키스, 알로에주스를 국내 유일의 할랄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를 통해 지난달 할랄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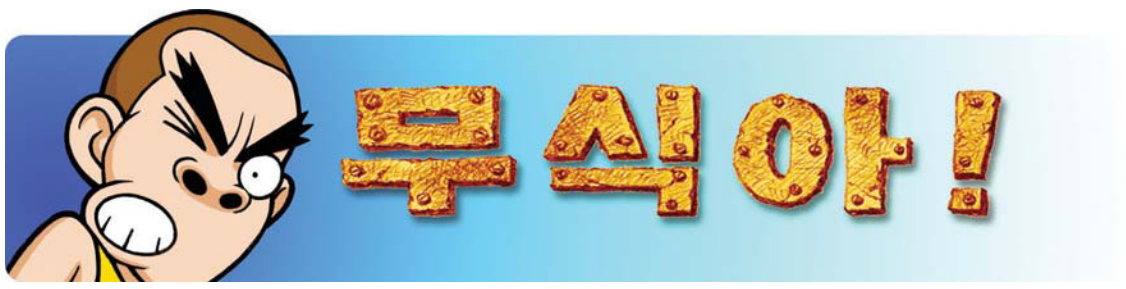
해당 인증은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할랄인증기관인 말레이시아(자킴, JAKIM), 싱가포르(무이스, MUIS) 등과 상호 동등하게 인정된다.

할랄 인증을 계기로 롯데칠성음료는 기존 말레이시아 현지의 테스코, 콜드스토리지 등 유통 채널의 판매 확대와 함께 세븐일레븐 등 신규 채널 개척에도 힘쓸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내년 말레이시아에 밀키스 100만캔(250㎖ 기준), 알로에주스 75만 페트(500㎖ 기준) 수출을 예상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 말레이시아에 할랄 인증 제품 수출을 시작으로 향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동 지역 등으로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할랄 인증 수출 품목도 추가로 확대하며 무슬림들 식탁에 먹거리 한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제작 | 그림자story www.grimzastory.com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금전운과 결혼운이 궁금합니다
한 우물 파되 세무·부동산 공부 도움

zato 남자 85년 12월 7일 양력 1시

Q 금전운과 결혼운에 대해 여쭙니다. 현재 보험설계사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지점장, 본부장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풀립니다. 남자 85년 양력 12월 7일 새벽 1시 생일입니다. 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저에게 비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이직을 한다면 어떤 직업, 어떤 분야가 좋을 지요.
그리고 현재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 친구가 있는데 자주 다투고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저에게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제 인연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결혼은 언제쯤 하면 좋을지 냉철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사람이 사는 이유는 보편적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한편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대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직업과 적성이 자신에게 맞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극심한 직업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일 한다고 합니다.

귀하는 '두개의 별'로 경(經)에 이르기를 신의가 깊고 사물의 처리가 빠르며 그 포부가 원대하여 한번 세운 계획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정을 지니고 있어서 매사에 자신이 있고 통솔력이 좋으며 일에 임하여 과단성이 있고 재치가 비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괴강(보스기질에 과격함)의 기운이 극과 극을 의미하고 한번 실패하면 매장된 광산처럼 재기불능에 처하기 쉽고 한번 좌절하면 다시는 그 일을 돌보지 않는 결단성이 있는데 일면 이기적인 성분도 함유하여 이해 타산적이기 쉽습니다. 이런 성향은 한번 무너지면 재기가 어려운 일면도 있기에 괴강의 기운은 꺼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우물을 꾸준히 파면서 중분 이후에 직업적으로 하향 길을 걷게 될 때를 대비하여 별도로 돈 벌수 있도록 공부를 하십시오. 보험과 연관된 일로 세무·부동산 업무가 연관이 되니까 하루 한 시간씩만이라도 책을 보십시오. 사업 운은 포태법상으로 절묘사(絕墓死:사망하여 묘지로 들어가 단절됨과 같이 침체를 나타냄)지로 가므로 장래에도 막연한 사업은 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지극히 일반적 얘기로 막연한 사업을 안 하면 버는 대로 모으게 되는 이치이지요.

지금 사귀고 있는 여성이 있으나 화목치가 못한 것이 신경 쓰이겠지만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 분의 궁합부터 보도록 해야 일시적으로 다투는 현재의 심적 부담에 대하여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 재 상담을 하도록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신점[神占] 운세 12월 24일 (음 11월 14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한가지 일에 집중하세요. 60년생 단기간이지만 입원치료도 불사해야 합니다. 72년생 전업은 길하지 못합니다. 84년생 한가지 일에 희망을 걸고 부지런히 뛰어 다니세요.

소 49년생 현업에 종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1년생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73년생 땀 흘리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85년생 칭찬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호랑이 50년생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2년생 귀하를 도우려 하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74년생 이성과의 데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86년생 좋은 운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토끼 51년생 뜻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3년생 부도덕한 행동은 신용을 잃게 하는 것이니 삼가세요. 75년생 여행을 떠나세요. 87년생 귀인의 소개를 받아 취직을 하게 됩니다.

용 52년생 독서는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64년생 무엇이 옳고 그른 지를 알아야 합니다. 76년생 행동을 반성하여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88년생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뱀 53년생 친구들에게 희망을 걸지 마세요. 65년생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77년생 흉한 운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89년생 귀하를 도울 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말 54년생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66년생 조직원들과 갈등이 우려됩니다. 78년생 주변의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90년생 대형 사고가 우려되니 조심하세요.

양 55년생 귀인이 귀하를 찾고 있습니다. 67년생 고집을 버리고 말과 행동을 주의하세요. 79년생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길합니다. 91년생 윗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원숭이 56년생 너무 어렵다고 걱정 마세요. 68년생 다시 좋은 시기가 올 것입니다. 80년생 직장운과 명예운이 아주 길합니다. 92년생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을 주지 마세요.

닭 57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게 됩니다. 69년생 주변 사람들이 더욱 귀하를 따릅니다. 81년생 때로는 한 발 양보하는 것도 길합니다. 93년생 금전운과 이성운 모두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개 58년생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70년생 욕심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82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일을 정리하도록 하세요. 94년생 약한 자를 돕는 게 좋습니다.

돼지 59년생 아래 사람들과 관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세요. 71년생 소원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83년생 아주 무난한 하루가 됩니다. 95년생 신경 쓰이는 일이 없습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7	6	9	8	3	5	2	1	4
2	4	7	6	9	1	8	5	3
1	5	3	2	4	7	9	6	8
5	9	6	3	8	4	1	2	7
8	1	2	7	6	9	3	4	5
4	3	7	5	1	2	6	9	8
6	2	4	9	5	3	7	8	1
9	8	5	4	7	6	3	1	2
3	7	1	1	2	8	5	3	6

1	2	5	3	9	4	8	7	6
6	8	9	7	2	5	3	4	1
4	7	3	6	1	8	5	9	2
8	3	4	2	5	9	6	1	7
7	1	6	4	3	7	9	2	5
5	9	2	8	6	1	4	3	7
2	5	1	9	8	3	7	6	4
9	4	8	5	7	6	1	8	3
3	6	7	1	4	2	9	5	8

7			9	4	8			
		8		2				
3	2		1				4	
	5					3		9
	3	9				7	8	
2		7					1	
	1				6		3	4
				8		1		
			2	1	5			6

					4		2	9
9		8		7			1	
2	5					4		
			6	3				8
		4	9		1	6		
7				5	8			
		3					8	2
	8			4		5		1
1	2		3					

BEETHOVEN

SYMPHONY No.5 & No.6

전원속의 운명

강한 추진력이 돋보이는 교향곡 5번 **〈운명〉**
평화로운 멜로디가 담긴 교향곡 6번 **〈전원〉**

2016.2.23 (Tue)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서희태 |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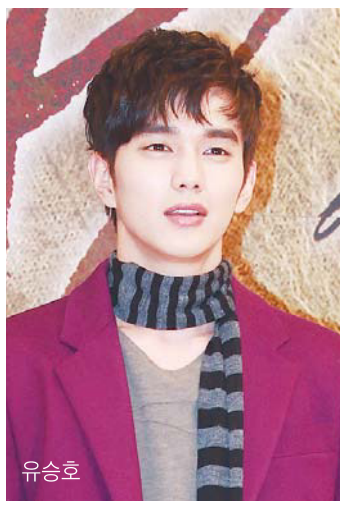
주최 사단법인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티켓 R 7만원 S 5만원 A 3만원 B 2만원

공연문의 02-6292-9370

예매 SAC 예술의전당 Ticket 02-580-1300 | AUCTION 티켓 1566-1369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 YES24.COM 공연 1544-6399 | HNT 하나 Free 티켓 1566-6668

유아인


유승호

아역 출신 유아인·유승호의 힘 "SBS 드라마 시청률 책임집니다"

'육룡이…' 정해진 결말에도 매회 화제 '리멤버' 감각적 연출 더해져 시청률↑

저조한 지상파 드라마 시청률 가운데 두 자릿수를 유지하며 시청률 1위를 달리는 드라마가 있다. SBS '육룡이 나르샤'와 '리멤버-아들의 전쟁(이하 '리멤버')'이다.

한 방송사가 월화수목극 동시 1위 탈환은 보기 드물지만 유아인과 유승호의 힘은 막강했다.

먼저 '육룡이 나르샤'의 경우 앞서 10월 5일 첫방송 당시 시청률 12.3%를 기록, 부동의 월화극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드라마는 '조선건국'이라는 결말이 정해진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매회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아인 표 이방원을 비롯해 김명민, 신세경, 조희봉, 변요한, 전노민 등 연기파 배우들의 연기가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지난 9일 첫방송된 '리멤버'는 당시 시청률 7.2%를 기록했지만, 영화 '변호인'의 윤현호 작가와 SBS 이창민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력이 더해지면서 회를 거듭할수록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극중 서촌여대생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지목된 아버지 서재혁(전광렬)을 구하기 위해 나선 아들 진우(유승호)의 고군분투기는 시청자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군 제대 후 첫 지상파 드라마 출연임에도 유승호는 흔들림없는 연기로 그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알츠하이머 아버지를 대할 때의 슬픈 눈빛은 물론, 남규만(남궁민)이 살인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표현한 당혹감과 두려움, 분노가 서린 복잡한 감정은 시청자의 감탄을 자아냈다.

시청률 1위와 광고 완판으로 인기를 증명한 두 작품 속 남자 주인공 모두 아역 출신 배우다.

2004년 KBS2 성장드라마 '반올림'에서 고아라의 남자친구로 등장한 유아인은 당시 아역 중에서도 세련된 이미지로 시청자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다수 작품을 통해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 영화 '완득이'(2011)와 '깡철이'(2013)에서는 수수하고 철없지만 주변 환경으로 인해 성장통을 겪는 인물을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했다. 드라마 '밀회'(2004)에서는 사랑 앞에서 무서울 것 없는 남자를 연기했다.

그리고 2015년 영화 '베테랑'과 '사도'로 전성기를 맞았다. 선배 배우 황정민, 송강호와의 연기에서도 자신만의 연기 호흡으로 확실한 캐릭터를 보였으며 '제36회 청룡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2002년 영화 '집으로'의 울보 꼬마 유승호는 영화 '블라인드'(2011)와 드라마 '무사 백동수'(2011), '보고싶다'(2012)에 출연하며 남자배우로 성장했다.군 제대 후 유승호는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리멤버' 외에도 MBC 에브리원 드라마 '상상고양이'에 출연하고 있다. 이달 말 영화 '조선마술사'와 내년 '김선달' 개봉을 앞두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리산 덮은 눈처럼 서늘한 연기 빛났대요

영화 '대호' **정만식**

영화 '대호'에는 호랑이와 최민식 못지않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배우가 있다. 조선의 포수대를 이끄는 리더 구경 역의 배우 정만식(41)이다. 이번 영화에서 정만식은 흉터 가득한 얼굴로 강렬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지리산을 덮은 새하얀 눈처럼 서늘한 연기 빛난다.

정만식이 '대호'에 출연하게 된 것은 선배인 최민식의 적극적인 추천 덕분이었다. 10세 때부터 포수 일을 해온, 사냥꾼의 냄새가 가득 나는 구경에게서 정만식을 떠올린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정만식은 시나리오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영화에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시나리오를 받고 난 뒤에는 고민이 생겼다.

"제가 한 역할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크더라고요. 캐릭터도 무겁고 깊었고요. 부담과 책임감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출연한 영화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대호'는 신경도 가장 많이 쓰고 집중한 작품이에요."

영화 속 구경의 첫 인상은 차갑다. 호랑이 대호에게 상처를 입어 얼굴에 흉터가 생긴 그는 오직 대호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신념 하나 뿐이다. 대호를 잡기 위해선 어떤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조선의 민족 정기를 꺾기 위해 대호를 제거하라는 일본군의 명령을 구경은 그 어떤 딜레마 없이 받아들인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 맹목적인 모습이 영화에 긴장과 스릴을 더한다.

구경을 연기하기 위해 다른 자료를 특별히 참고하지는 않았다. 늘 그래왔듯 자신의 일부분에서 구경과 닮아 있는 교집합을 찾아 캐릭터에 접근했다. "저에게 삶의 목적은 '연기하는 나', 그리고 '무대에 서 있는 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구경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산에 오르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호랑이에 대한 분노와 복수, 오로지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구경의 마음을 속으로 되뇌이면서 연기하려고 했습니다."

구경은 영화 내내 다소 평면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그러나 아주 잠깐 동안 그에게도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순간이 있다. 천만덕의 아들 석이(성유빈)와 함께하는 장면들이다. 특히 영화 후반부, 극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극적인 장면에서 정만식은 디테일한 시선 처리로 구경의 복잡한 내면을 표현한다. 그가 구경이라는 인물을 얼마나 깊이 연구해 몰입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감독님이 짧게 디렉션을 내렸어요. '구경의 목적은 하나죠? 이번이 기회입니다'라는 말이었죠. 구경이라는 인물이 지닌 목적을 잘 보여줘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때는 특별한 계산없이 자연스럽게 시선이 흘러갔어요. 구경은 사냥꾼이지만 스스로는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거짓말을 뻔뻔하게 못할 것 같았거든요."

비정하고 맹목적인 포수 역 최민식 추천으로 작품 출연

대작 출연으로 존재감 각인 중압감 헤쳐가며 연기할 것

연극 배우로 연기를 시작한 정만식은 그동안 많은 영화에서 감초 같은 조연으로 활약해왔다. 올해는 '베테랑'과 '내부자들', 그리고 '대호'까지 대작 영화에 연이어 출연하며 대중에게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내년에도 그의 활약은 계속된다. 영화 '아수라'를 촬영하고 있고 OCN 드라마 '동네의 영웅'도 준비 중이다.

"배우로서 지나간 날들에 후회는 없어요. 연극한 사람들이 그 때의 기억을 힘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선택한 일인데 힘들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웃음). 지금까지의 크고 작은 역할들 모두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물론 제가 맡는 역할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의식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의식하면 다 티가 나거든요. 중압감도 있지만 잘 해쳐나가고 싶습니다(웃음)."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TV 하이라이트

털털한 이미지와 상반된 아기자기한 방 공개

◆ JTBC '헌집줄게 새집다오'

오후 9시30분

개그우먼 김영희가 게스트로 출연해 자신의 방을 공개한다. MC와 패널들은 털털한 이미지와 달리 아기자기한 소품과 귀여운 인형으로 가득 찬 김영희의 방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김영희는 "남이 사준 것이 많다. 대부분 아는 오빠들이 사준 것"이라고 밝혀 '인기녀'에 등극한다.

24일(목)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00 MBC 뉴스	05:00 SBS 5 뉴스		05:40 코미디 빅리그 Hot clip (재)		
05:10 내 고향 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피		05:10 건강 플러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30 응답하라 1994 (재)	06:20 러브 레터	06:30 초콜렛 도넛
06:00 KBS 뉴스광장	06:00 2TV 아침 1부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00 모닝와이드 (1~3부)	06:00 말의 마법 (재)			
07:50 인간극장	07:00 2TV 아침 2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7:00 쿵푸 공룡수호대 (재)		08:30 파퍼씨네 펭귄들	08:20 선샤인 온 리스
08:25 아침마당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7:50 내일도 승리	09:10 좋은아침	07:30 JTBC NEWS 아침 &			
09:30 KBS 뉴스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10:10 SBS 뉴스		09:50 내 방의 품격 (재)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9:40 여유만만	09:30 MBC 생활뉴스	10:30 SBS 생활경제	09:00 비정상회담 (재)		10:10 눈의 여왕	10:30 사운드 오브 뮤직
11:00 KBS네트워크특선 필통	10:40 지구촌 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10 마녀의 성 (재)	10:30 마리와 나 (재)	11:40 집밥 백선생 (재)	11:40 투모로우	
11:55 안녕 우리말 (재)	11:00 인간극장 스페셜	11:00 엄마 (재)	11:50 SBS 12뉴스	11:4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2:00 KBS 뉴스 12	12:45 인간극장 스페셜	12:00 MBC 정오뉴스			12:30 응답하라 1988 (재)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2:20 엄마 (재)	12:45 오! 마이 베이비 (재)	13:05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4:00 열린채널	14:00 KBS 뉴스타임	13:20 최고의 연인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4:30 러브 인 태국 (재)	14:10 생활의 발견 (재)	14: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스페셜	14: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4:00 아이스 에이지 4:대륙 이동설
15:25 행복한 지도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00 MBC 뉴스	15:00 3시, 뉴스브리핑	15:50 4시 사건 반장		14:10 덕수리5형제	
16:00 오늘의 경제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5:10 헬로키즈 싸이걸스 (재)					
16:10 조선을 사랑한 의사 에비슨 42년의 기록 (재)	16:00 누가 누가 잘하나	15:55 프리파라	16:00 고향이 보인다		16:20 SNL 코리아 시즌6 (재)		16:00 트루먼 쇼
		16:25 아름다운 당신 (재)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10 5시 정치부 회의		16:30 스타워즈 3:시스의 복수	
17:00 KBS 뉴스 5	17:00 위기탈출 넘버원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7:00 바이클론즈		17:40 코미디 빅리그 (재)		
17:20 시사진단			17:30 SBS 뉴스 퍼레이드				
18:00 6시 내고향	18:00 글로벌24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8:05 생방송 투데이	18:30 조선을 향한 생명과 사랑, 윌리엄 스크랜튼 (첫 회)			18:00 어바웃 타임
18: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00 내 방의 품격 (재)		
19:00 KBS 뉴스 7	19:50 다 잘될 거야	19:15 최고의 연인	19:20 마녀의 성	19:55 JTBC 뉴스룸		19:20 나홀로 집에	
19:30 성탄 기획 한국인의 밥상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19:55 MBC 뉴스데스크	20:00 SBS 8 뉴스		20:20 어쩌다 어른		20:30 주말 N 영화
20:25 우리 집 꿀단지	20:55 비타민	20:55 아름다운 당신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1:30 나홀로 집에 2	
21:00 KBS 뉴스 9		21:30 리얼스토리 눈		21:30 현집 줄게, 새집 다오	21:4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		22:00 신세계
22:00 KBS 다큐 1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22:00 달콤살벌 패밀리	22:00 리멤버-아들의 전쟁				
23:00 KBS 뉴스라인	23:10 해피 투게더	23:10 위대한 유산		22:50 썰전	23:00 방송국의 시간을 팝니다		
23:40 2015 쇼팽 국제피아노 콩쿠르 우승 조성진 스페셜	24: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4:30 MBC 뉴스 24	23:15 자기야-백년손님				24:40 반지의 제왕 : 왕의 귀환
		24:55 MBC 다큐프라임	24:35 나이트라인	24:2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24:4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재)	24:00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발목잡는 국회

기자 수첩

김 문 호
〈파이낸스&마켓부〉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체셔 캣이라는 말재주 좋고 꾀 많은 고양이가 등장한다.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다 갈림길에서 체셔 캣을 만나 길을 물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니?" 체셔 캣은 엘리스에게 되물었다. "어디에 가는데?" 엘리스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체셔 캣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금융개혁이 딱 그 짝이다.

최근 정부가 4대 개혁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개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잖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스스로도 "금융회사들이 실물경제에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거나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성과가 아직 충분히 가시화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코스피지수는 3.4% 올랐지만 같은 기간 금융업 주가지수는 오히려 6.1% 하락했다"며 "금융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냉정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에선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정부나 금융당국를 비난 하려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의 잘못 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금융개혁은 매우 민감한 이슈다. 큰 그림에서 행정개혁을 전제로 한 정부구조개편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금융개혁 수준이 아니라 행정개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힘들다.

또 조금은 느리지만 한발 한발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맞다.

개혁이 느리다거나 방향이 틀렸다고 정부나 금융당국을 탓하기 전에 제도부터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선거구 획정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1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금융개혁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룬 금융법안은 워크아웃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대부업의 이자 상한을 낮추는 대부업법, 금융소외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법,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등이다.

'제밥그릇 챙기기식' 정쟁에 언제까지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가. 애국의 길은 먼곳에 있지 않다. 왜 여의도 국회에서만 모를까.

/kmh@metroseoul.co.kr

社說

제 19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두려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막판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22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상임위원회 관계자들을 소집했다.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주선한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측이 응하지 않았다. 때문에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회동'으로 진행됐다. 정의장은 이날 제19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둬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쟁점 법안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히 느껴진다.

정 의장의 말대로 제19대 국회는 이달말이면 사실상 끝난다. 그렇기에 끝나기 이전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의장은 24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다시 불러 중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정 의장의 중재에 대해 야당도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형식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그렇지만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쟁점없는 법안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쟁점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23일에도 여야는 교육문화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를 가동했다. 다른 상임위도 움직여야 한다. 정 의장이 다시 나서고 여야가 다시 협의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만나기만 해서는 안되고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해야 한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도 허비하면 안된다.

야당이 이 시점에서 유의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지금 정 의장이 정부여당은 물론 일부 보수단체로부터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라는 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정 의장의 이 같은 의연한 태도가 과연 끝까지 유지될 지는 미지수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정 의장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고 살려주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헌정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기지 않고 제19대 국회를 명예롭게 끝낼 책임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게도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암을 파는 게 아니에요"

독자의 소리

정 선 희

"아줌마, 저것 보세요. 어휴 징그러워" 우리 편의점에 과자를 사러 온 아이가 TV에 나온 금연광고를 보고 내게 건넨 말이다. 고개를 돌려보니 "후두암 1㎎ 주세요"라는 광고가 이어졌다. '내용이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TV방영 중인 자극적인 금연광고의 효과를 기대하는 이도 있겠지만, 오히려 나 같은 담배 판매인이나 흡연자들은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조그만 흉기조차 모자이크로 처리하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흉측한 환자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이번 광고를 시청해야만 하는 이들은 불쾌감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지켜보는 편의점 업주들은 억울하고 답답할 따름이다. 흡연을 하면 무조건 암에 걸린다는 직설적 표현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데도 질병을 팔고 있다는 것인가. 죄인이 된 기분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금연광고 영향 탓에 담배 매출이 점점 줄어들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담배는 편의점 전체 매출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상품이다 보니 점주들에게 담배는 생존권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나는 영세한 편의점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금연광고를 추진한 보건복지부의 불통행정에 화가 난다. 복지부가 담배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봤는지, 광고의 부작용은 없는지를 찬찬히 살펴보고 정책을 실행했는지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심정이다.

금연정책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편의점 자영업자들은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뿐, 암(癌) 덩어리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다. 담배가 불법이 아닌 이상 우리는 이 기호품을 정당하고 자유롭게 팔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금연광고는 지나친 면이 다분하다.

나는 담배 판매인을 비롯해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는 금연광고를 곧바로 중단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했듯 암질환 유발의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다. 정부가 금연광고 방영 중단으로 편의점주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5세 아이의 증언능력, 인정될까

생활법률

A씨는 만5세인 그의 딸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한 동네에 사는 B씨에게 그의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 화가 난 A씨는 형사고소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딸아이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는 없다. 5살인 아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고민에 빠진 A씨. 어린 아이의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증인의 자격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은 16세 미만인 경우 선서를 하지 않고 신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증언 능력에 대한 관련 판례는 "비록 선서무능력자라해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언의 신빙성 유무는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는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진술의 태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해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는 사고 당시 만 3년 7개월이던 여아의 증언능력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반면 피해자 엄마의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진술한 만 3세1개월 남아는 증언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A씨 사안의 경우 만 5세 딸 아이의 증언능력 인정 여부는 위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연미란 기자 actor@

인사

◆CJ그룹 〈승진〉

◇CJ주식회사 ▲상무대우 △글로벌팀 글로벌2담당 전재경 △사업팀 사업1담당 이건일 △기획팀 M&A담당 윤상현 △홍보실 홍보기획담당 이상준 △안전경영실 정보보안담당 이 찬 △전략지원팀 전문임원 권영광 △마케팅팀 비쥬얼마케팅담당 양효석 △감사팀 전문임원 이동현

◇CJ제일제당 △BIO인니파수루안 공장장 김한수 △BIO유럽법인장 장해영 △생물자원 베트남담당 김선강 △식품미국TMI법인장 정지원 △재무팀 담당임원 김준현 △유용미생물TF장 김봉준

◇CJ푸드빌 △인사담당 서승훈 △경영전략실장 김준성 △컨세션본부장 권혁찬

◇CJ프레시웨이 △FS본부장 박경철 △미래성장사업본부장 윤성환

◇CJ오쇼핑 △영업전략담당 오길영

◇CJ대한통운 △경영관리담당 유승호 △전략기획담당 안재호 △택배서부사업담당 정기호 △택배경원사업담당 김태승

◇CJ E&M △방송사업부문 tvN본부장 이명한 △라이프스타일본부장 신유진 △광고사업부문 미디어솔루션사업담당 손현식 △사업관리담당 홍기성 △E&M중국 미디어사업담당 전문임원 권익준

◇CJ CGV △중국개발기술담당 장경순 △영업담당 박준혁 △ScreenX사업담당 안구철

◇CJ건설 개발사업본부장 홍성태 〈이동〉

◇CJ주식회사 ▲총괄부사장 △사회공헌추진단 변동식 ▲부사장 △대외협력단 이재호 △경영지원총괄 이한국

◇CJ제일제당 ▲부사장 △CJ제일제당 경영지원총괄 허민회 ▲부사장대우 △생산총괄 유종하 △식품글로벌사업본부장 신현수 ▲상무 △생물자원사업부문장 정근상 △BIO성장추진담당 조광명 △BIO심양공장장 임상조 △BIO요성공장장 김정환 △소재 실수요SU장 천영훈 △식품성장추진담당 김양우 △식품마케팅본부장 이상구 △식품영업본부장 이성수 △식품 경원SU장 정원영 △품질안전담당 김상유 ▲상무대우 △BIO글로벌마케팅담당 윤석환 △BIO사업관리담당 배성진 △BIO기술혁신센터 전문임원 윤덕병 △BIO기술연구소 전문임원 무라타히데키 △식품 미국사업담당 박 린 △식품연구소 Global R&D센터장 강기문 △식품 KAM SU장 김상익 △인사지원실 조직문화담당 김태호

◇CJ프레시웨이 ▲부사장대우 △유통사업총괄 문종석 ▲상무대우 △체인SU장 홍순일

◇CJ오쇼핑 ▲부사장대우 △경영전략실장 이인수 ▲상무 △H/L사업부장 신장영 ▲상무대우 △온리원사업부장 김경연

◇CJ대한통운 ▲총괄부사장 △CJ대한통운 공동대표이사 兼 중국본사 공동대표 박근태 ▲부사장대우 △경영지원총괄 최은석 ▲상무 △TES전략실장 정태영 △Rokin PMI추진단장 어재혁 △CL2본부 TML사업담당 이재만

◇CJ올리브네트웍스 ▲상무대우 △올리브영부문 성장전략담당 존 권 △올리브영부문 상품본부 브랜드사업부장 강형주

◇CJ E&M ▲상무 △경영지원실장 최도성

◇CJ CGV ▲부사장대우 △전략기획실장 장용석 ▲상무 △글로벌성장담당 김종우

◇CJ건설 ▲부사장 △CJ건설 대표이사 兼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춘학

◇CJ 해외본사/지역본부 ▲부사장 △중국본사 공동대표 이철희 ▲상무 △중국본사 사업개발팀장 김영수 ▲상무대우 △동남아지역본부 경영관리담당 김원상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 심달훈 △부산지방국세청장 최현민 △대전지방국세청장 최진구 △광주지방국세청장 한동연 △대구지방국세청장 서진욱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희철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최정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박만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현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세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서대원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양병수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임경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노정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이동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형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구진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임광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명준

◆경찰청 △본청 보안1과장 이은정 △부산청 정보화장비과장 이순용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 진정무 △서울청 정보1과장 서범규 △본청 인사담당관 우종수 △서울청 홍보담당관 김재규 △서울청 101경비단장 설광섭 △본청 복지정책담당관 임용환 △본청 여성청소년과장 이광석 △본청 정보4과장 장하연 △본청 형사과장 송병일 △강원청 생활안전과장 이의신 △서울청 경비1과장 연정훈 △서울청 수사과장 김근식 △대구청 수사과장 이원백 △본청 감사담당관 최관호 △본청 사이버범죄대응과장 이영상 △본청 기획조정담당관 진교훈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사관리과장 조재구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최현주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한을석 △시설사업국 예산사업관리과장 손병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지원본부 본부장 김재희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김기석

◆국민일보 ◇ 이사대우 승진 △이승한 종교국장 △이용웅 광고마케팅국장 △이기수 편집국 의학전문기자

◆ING생명 ◇ 임원 승진 △PR&커뮤니케이션실장(전무) 이성태

◆안랩 ◇ 승진 ▲상무 △성백민 경영지원실장 ▲상무보 △이호웅 EP연구소장 △김형준 컨설팅본부장 △김기대 MSS본부장 △노영진 NW개발본부장 ▲직책보임 △김석중 NW영업본부장

부고

▲ 박대용(울산해양경비안전서 정책홍보실장)씨 모친상 = 23일 오전 9시 20분. 부산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 영락공원 2빈소(1층), 발인 25일 오전. 010-4691-8326

▲ 이재희(한솔홀딩스 경영기획실장 부사장)씨 부친상 = 23일,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5일 7시 02-2227-7500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 집 국 장
인 쇄 인 송 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올 한국축구 ★ 김영권·조소현

〈올해의 선수상 수상〉

2015 KFA 어워즈

김영권(25·광저우 에버그란데)과 조소현(27·인천현대제철)이 올해 최고의 한국 축구선수로 선정됐다.

김영권과 조소현은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5 대한축구협회 시상식에서 각각 남녀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수상했던 손흥민(23·토트넘)과 지소연(23·첼시 레이디스)은 올해 김영권과 조소현에게 그 영광을 넘겼다.

김영권은 올해 대표팀과 소속팀을 오가며 좋은 활약을 펼쳤다. 대표팀의 중앙 수비수인 그는 올해 대표팀 20경기 중 17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역대 최다 무실점 경기 기록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 8월에는 주장 완장을 차고 동아시안컵에 출전했다. 빗장수비로 후방을 단단히 걸어 잠그며 팀의 무실점 행진과 7년 만의 우승을 이끌었다. 또한 201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서는 소속팀 광저우 에버그란데의 4강 진출에 힘을 보태는 등 좋은 결실을 거뒀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영권은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이다.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데 올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상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소현은 지난 6월에 열린 FIFA 캐나다 여자월드컵에서 대표팀 주장으로서 한국 여자축구를 사상 첫 16강으로 이끌었다. 스페인전에서 후반전 동점골을 터뜨리며 16강 진출의 발판을 놓았다. 동아시안컵에서도 호쾌한 장거리 동점골로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상대로 맹활약을 펼쳤다.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5 대한축구협회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에 선정된 김영권(왼쪽)과 조소현(오른쪽)이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빗장수비 핵심' 김영권
대표팀서 중앙 수비수 활약
역대 최다 무실점 기록 기여

'월드컵대표팀 주장' 조소현
고비마다 골 폭발 경기 주도
女월드컵 첫 16강 진출 발판

그는 "팀이 잘 했기 때문에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좋은 성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의 선수상은 협회 기술위원 투표 50%와 체육기자연맹 소속 언론사 축구팀 장단 투표 50%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선정됐다.

올해 신설된 영플레이어상은 이상민(17·현대고)과 홍혜지(19·고려대)가 수상했다. 이상민은 지난 10월 2015 FIFA 17세 이하(U-17) 칠레월드컵에서 주장을 맡아 한국의 16강행을 이끌었다. 홍혜지는 중앙 수비수로 두각을 보이며 올 해 처음으로 성인대표팀에 합류했다.

리스펙트상은 올림픽대표팀 소속의 심상민(22·FC서울)과 인천 부평구청 어린이축구단에 돌아갔다. 심상민은 지난 2월 태국에서 열린 킹스컵 대회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고도 응대하지 않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했다.

올해의 베스트골상은 지난 1월 호주 아시안컵 호주와의 결승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린 손흥민이 받았다. 올해의 지도자상에는 용인대학교의 이장관 감독과 대전 한빛고등학교 김진형 감독이 각각 선정됐다. 히든 히어로상은 14년 동안 여자 대표팀의 의무 트레이너로 일해온 송숙 씨가 받았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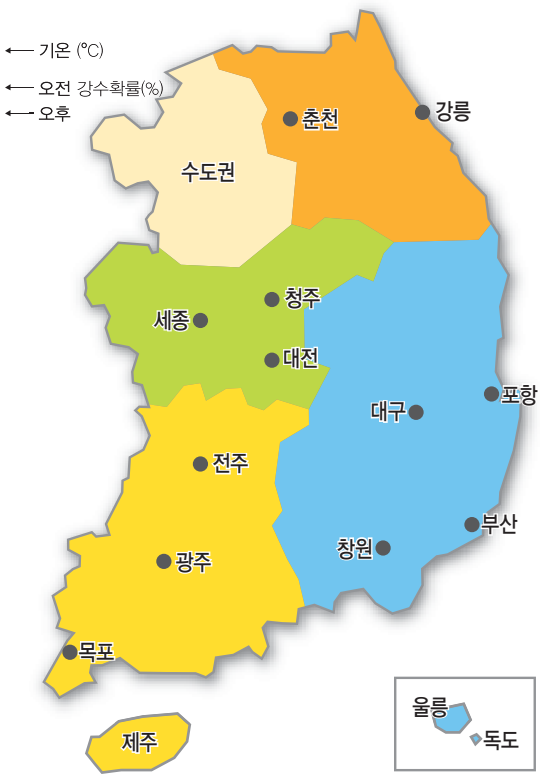
해뜸/07:44 | 해짐/17:18

12월 24일 목요일 (음력 11월 14일)

성탄 이브, 눈 대신 구름만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m로 일겠습니다.

	기온(℃)	오전 강수확률(%)	오후
춘천	-2/5	20	10
강릉	5/10	20	20
세종	1/7	20	20
대전	1/8	20	20
청주	2/8	20	20
광주	4/10	20	20
전주	3/9	20	20
목포	6/8	20	20
제주	8/11	20	20
대구	3/10	20	20
창원	7/13	20	20
포항	7/12	20	20
부산	8/14	20	20
울릉	7/13	2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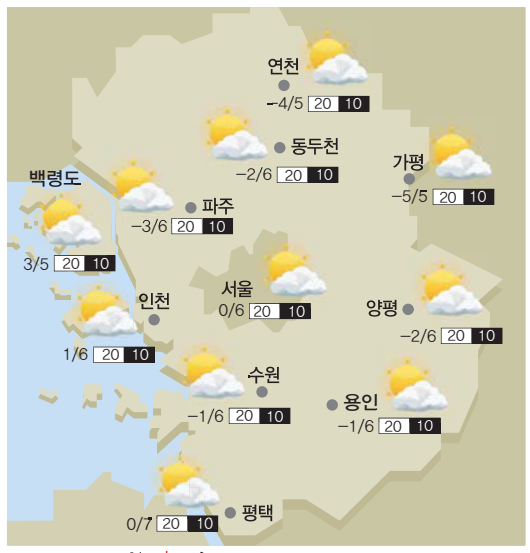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6~0 ℃

체감온도	
피부질환 가능지수	
감기 가능지수	
천식-폐질환 가능지수	

밀물과 썰물

지역	밀물	썰물
부산	07:34/19:53	01:01/13:29
인천	03:33/19:09	09:52/22:33
울산	06:39/19:24	00:17/12:34
군산	01:46/14:27	08:44/21:29
목포	00:37/13:26	06:05/18:4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신태용호, 내달 중동국가와 실전 담금질

4일 UAE·7일 사우디와 평가전
올림픽 최종 예선 전 기량 극대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올림픽 대표팀이 내년 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잇따라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23일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남자 대표팀이 내년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을 앞두고 중동 국가에 대한 실전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을 치른다고 밝혔다.

신태용 감독(왼쪽)과 올림픽 축구 남자 대표팀 선수들. /연합뉴스

신태용호는 오는 28일 두바이로 출국한다. 아랍에미리트 올림픽대표팀과는 내년 1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는 1월 7일(이상 한국시간 23시) 맞붙는다.

올림픽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역대전적에서 5전3승2무, 아랍에미리트와 역대전적에서 5전4승1패로 앞서있다.

축구협회는 이번 평가전이 실전감각 향상 뿐 아니라 현지 적응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림픽대표팀은 25일까지 울산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해 23명의 최종 엔트리를 확정한다.

한국은 올림픽 최종예선에서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예멘과 함께 C조에 속해있다. 이 대회에는 16개 참가국이 4개 팀씩 4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팀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리우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선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장병호 기자

고코치의 운동하기 좋은날

하루 20분만 투자하면 내 몸이 달라집니다. 메트로신문은 벨라인 여성전용 휘트니스의 고봉국, 박중범 트레이너와 함께 매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 **스트레칭** 햄스트링의 이완과 골반 교정 스트레칭 (왕복 10회)

1. 왼발 옆에 어깨너비로 오른손을 놓는다. 오른발은 오른손 아래쪽으로 곧게 뻗어 준비자세를 취한다.
2. 왼손의 팔꿈치가 다 뻗을 만큼 왼쪽 무릎 안쪽을 밀어준다. 이때 상체는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준다. 10초간 스트레칭 후 반대편 다리로 바꿔서 실시한다.
*주의: 왼발의 안쪽을 그림과 같이 살짝 들어줘야 더욱 골반 스트레칭의 효과가 있다.

◆ **메인 트레이닝** 허벅지 안쪽 운동 및 등·허리 운동 (15회X5세트-1세트 후 40초 휴식·2세트 후 30초 휴식·3세트 후 20초 휴식·4세트 후 10초 휴식)

1. 두 발은 어깨너비 2배로 벌리고 발끝은 그림과 같이 대각선을 향한다. 수건을 이용해 두 팔을 최대한 스트레칭한 자세로 준비한다.
2. 무릎은 구부리면서 자세를 낮추고 두 팔을 머리 뒤로 살짝 뻗어준다. 3초간 정지한 뒤 다시 일어선다.
* 주의: 무릎의 양발 발끝과 같은 방향으로 벌려준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 무릎 상해를 입을 수 있다.

/트레이너: 고봉국, 박중범 (벨라인 여성전용 휘트니스)

볼티모어 언론 "김현수 메디컬테스트 이상 없어"

성탄 연휴전 입단 발표나올 듯

김현수(27·사진)의 볼티모어 오리올스 공식 입단 발표가 크리스마스 이전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역지 볼티모어 선은 23일(이하 한국시간) "김현수의 볼티모어 입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볼티모어의 메디컬테스트는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라며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는 공식 입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역 방송사 MASN도 "김현수의 메디컬테스트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면 김현수에 대한 걱정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수는 2016년 볼티모어의 주전 좌익수다. 우익수를 보기에는 어깨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며 내년 라인업을 예측하기도 했다.

김현수는 17일 미국으로 출국해 이틀 동안 메디컬테스트를 받았다. 볼티모어 선은 "김현수의 몸 상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볼티모어는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현지 언론의 분위기를 보면 메디컬테스트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볼티모어 구단은 24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에 들어간다. 그전에 김현수의 입단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현지 언론은 "이틀 내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병호 기자

연말 심야택시 쉽게 잡는 법

카카오블랙·우버·해피존… 심야땐 이용할 만

서울市, 택시해피존 운영하고 연말까지 택시 교대시간 조절

티맵택시·카카오택시 등 택시앱들 할인·주말 운영 강화하며 시행 동참

"차가 없네. 차가 없어. 택시…!"

택시잡기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심야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도로 곳곳은 택시를 잡으려는 자와 대목을 노려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기사들이 실랑이를 벌인다. 카카오택시를 수십 차례 호출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실제 택시 승차거부가 연말 심야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말 심야시간은 승차거부 등 택시 민원이 가장 몰리는 시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을 분석한 결과 월별로 2014년 12월이 757건, 2013년 12월이 553건으로 매년 12월이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자정에서 새벽 2시(26.0%)에 민원이 집중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해피존'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23시부터 익일 2시까지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사이 대로변에 지정된 6개 구역승차대에서 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승객들은 해피존에서 앱을 통해 택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버의 일반택시 서비스인 우버택시(UberTAXI)도 해피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우버는 해피존에 참여하는 우버택시 기사들에게 매 여정에 대해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늦은 밤에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 교대시간을 조정했다. 연말까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개인택시 약 5만대를 모두 운행한다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교대시간 조정 참여 여부는 자율적이지만 시민 서비스를 위해 조합을 통해 독려하고 있다"며 "승객이 많은 밤 시간대 운행을 선호하는 젊은 운전자들에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심야 택시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심야 택시운행 확대를 위한 교대시간 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바일 택시앱 서비스 업체들도 할인 프로모션과 주말 운영을 강화하는 등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SK플래닛의 티맵택시는 지역 콜 사업자와의 연계를 위해 전국 단위로 사업자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해피존 도입 여부도 검토중이다.

카카오택시는 최근 출시된 '카카오택시 블랙'을 중심으로 최근 1만원 할인 프로모션을 30일 까지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서울역 고가에서 '크리스마스 산책' 해볼까

25일 12시부터 3시간동안 개방 도로 거닐며 요청·제안 적을 수도 제안된 시민의견, 실시 설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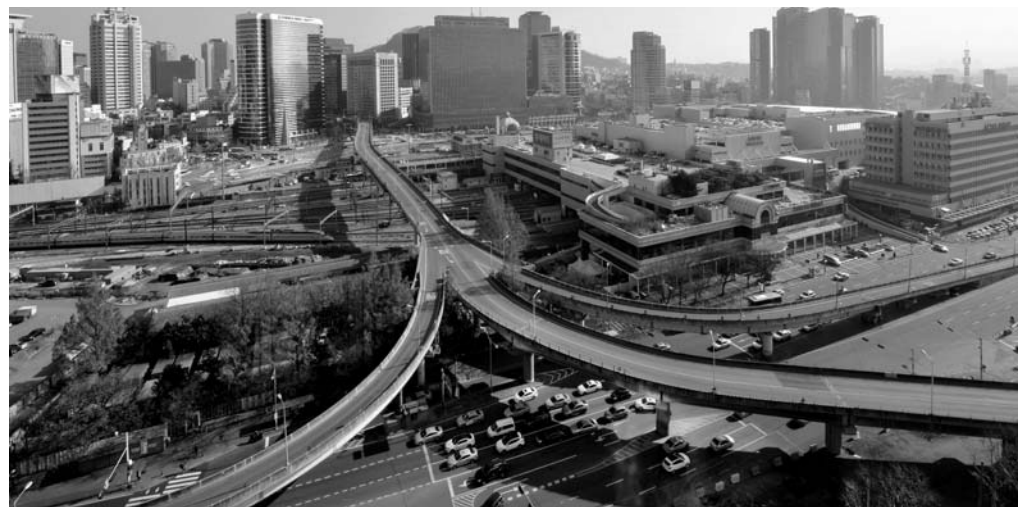
서울시가 크리스마스날인 25일 12~15시 3시간동안 시민들에게 서울역 고가를 개방한다고 23일 밝혔다. 고가 철거를 하루 앞둔 25일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고가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고가 개방 행사를 갖는 것.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고가산책' 행사는 ▲서울역 고가 기본 설계안 실물크기 거리예술작품 설치 ▲시민산책 및 의견 수렴 ▲가이드투어 '산책버스' 운영으로 구성됐다.

이날 서울역 고가에는 예술가들이 고가도로 상부 약 1km 구간을 캔버스 삼아 서울역 고가 기본 설계안을 실물 크기로 그려넣은 대규모 거리예술작품이 바닥에 페인팅된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고가를 산책하며 이러한 기본설계안을 살펴보고 밑그림만 그려진 일부 구간에 분필 등으로 설계·시설물에 대한 요청사항이나 제안을 자유롭게 덧그릴 수 있다. 제안된 시민 의견은 추후 실시설계에 반영된다.

'산책버스'는 전문해설가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산책하는 도보투어 프로그램으로 3시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총 5회(12시부터 실시, 소요시간 1시간) 운영된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동 7017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역 고가차로가 텅 비어 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시민이 걷기 좋은 도시로 바꾸기 위해 고가 공원으로 변모하는 서울역 고가도로는 공원화 사업을 위해 내년 4월까지 고가 바닥판을 모두 철거한다. /뉴시스

이번 행사를 끝으로 서울역 고가는 26일 예정대로 철거된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지금까지 서울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45년간 쉬지 않고 차량길로 묵묵히 자리해준 서울역 고가가 보행공원으로 재탄생돼 시민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크리스마스에 진행되는 행사인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축복 속에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서울역 고가 개방행사 예상 이미지. /서울시

연말엔 현대미술관에서…

'찰칵 CM 크리스마스 코너' 등 4개 테마 '특별한 선물'展 열려 '공간을~'·'낭만수요일'도 눈길

어린이미술관 모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이 연말을 맞아 과천관서 다양한 문화교육행사를 연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는 오는 30일 '문화가 있는 날'까지 '공간을 그리는 미술관'을 어린이미술관 입구와 배움뜰에서 진행한다. 관람객은 이지연 작가가 만들어놓은 작품 안에 직접 자신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다.

또 '미술관이 주는 특별한 선물'을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 총 4개의 테마로 구성됐으며 '작가의 아트블록' '나만의 아트블록 만들기' '작가와 아트블록 만들기' '찰칵 CM 크리스마스'다. 블록을 활용한 작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직접 자신만의 아트블록을 제작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찰칵 CM 크리스마스' 코너에서는 자신이 만든 작품을 즉석 사진기로 촬영할 수 있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다.

아울러 오전 10시 30분부터 한시간 가량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낭만수요일'도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기획전과 연계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과 작가와 그 시절 낭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원선 기자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3370호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라이프]
연말
심야택시
쉽게 잡는 법
19

연재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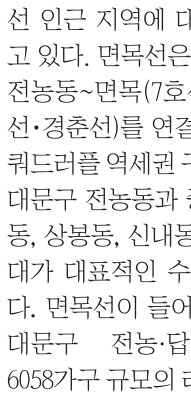
14

경전철 면목선 프리미엄 '답십리'

지하철을 읽으면 부동산이 보인다

④답십리

6천가구 규모 래미안브랜드타운 들어서
'백화점 선호도' 2위, 롯데백화점도 인접
경동시장, 둘레길 조성 등 활성화 가속도



서울 경전철 개발이 속속 진행됨에 따라 노선 인근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면목선은 청량리(1호선)~전농동~면목(7호선)~신내(6호선·경춘선)를 연결하는 9.05㎞ 쿼드러플 역세권 구간이다. 동대문구 전농동과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신내동, 망우동 일대가 대표적인 수혜지로 꼽힌다. 면목선이 들어서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답십리뉴타운에는 6058가구 규모의 래미안 타운이 조성된다. 단지별로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 2397가구, '답십리 래미안 위브' 2652가구, 래미안 미드카운티 1009가구다.

단지 인근에는 임산부와 육아맘이 가장 선호하는 백화점(롯데백화점)이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6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서울, 경기, 부산 등에서 실시된 '2015 영유아 라이프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44.4%로 1위에 올랐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0월 실시된 국내 백화점 톱10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여성 응답자 4명 중 1명(25.7%)은 롯데백화점을 꼽았다.

경동시장은 동대문구가 활성화에 팔을 걷어부쳤다. 구는 경동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상인 건강관리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둘레길 조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시장탐방단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걷기운동과 장보기를 접목한 시장둘레길은 상인 대다수가 걸어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인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상인들은 만보기를 차고 이문동부터 정릉천까지 다니며 걸음수를 체크한다.

배봉사거리에서 청량리청과물시장을 거치는 7코스는 7300보, 경희대삼거리에서 홍릉수목원을 지나는 9코스는 4050보 등 관내 중앙에 자리 잡은 경동시장까지 선택해 걸을 수 있는 9개의 둘레길 코스가 짜여졌다.

이문동, 장안동, 제기동 등 시장과 비교적 가까운 동네는 바로 걸어오는 대신 주변의 다른 전통시장이나 홍릉 등 지역 명소를 코스에 포함해 걷는 시간이 길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장둘레길 지도는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를 통해 지역 사회에 배부됐다.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경동시장을 찾는 탐방단도 꾸려져 있다. 아이들은 새우젓을 직접 맛보고 더덕이나 약초 등 생소한 식품도 살펴보는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일대 호재는 청약 인기로 이어졌다. 래미안 브랜드 타운 마지막 공급 물량인 래미안 미드카운티는 지난 10월 견본주택 개관 후 주말까지 3일간 1만5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어진 청약에서는 512가구(특별공급 제외)에 3195명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하며 평균 6.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소형인 전용면적 59㎡A는 108가구에 1571명이 지원해 14.5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유일한 대형이었던 123㎡도 36가구에 42명이 청약을 신청해 모집정원을 모두 채웠다. 최근 이뤄진 계약은 4일 만에 100% 완판됐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사진=뉴시스